

열왕기상 1장

1.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품고 자는 일은 예로부터 회춘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개념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왕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자체를 의미하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일에 현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과거는 의미를 상실해버릴 위험이 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체온을 이용해서 늙은이의 원기를 회복하는 의술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2. 나이가 들면 맛있는 음식의 맛도 모르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단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드린다?

별 뽕족한 수는 없는 듯하다. 다만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니까 어린애를 돌보듯이 인내하면서 모시는 수밖에.

3. 왜 동침치 않았을까?

능력이 없었을 것, 또는 역할이 감소(치료)였기 때문: 아무래도 전자가 아닐까? 나중에 아도니야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솔로몬이 그를 처형한 것은 전자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4.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야말로 위인 중의 위인이다. 그런데 열왕기의 다윗은 왜 이모양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나락날 뿐이다.

5. 아도니야는 체용이(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요, 꾸중을 들은 적이 없는 왕자였다. 4번째 왕자였지만(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음으로) 당시에는 가장 연장자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나?

스스로 높임(5): 성경에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처음으로 전배 50명을 세운 사람은 압살롬이었는데 결국 망해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삼하 7:12-17). 거사일에 솔로몬과 나단과 브나야를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왕위계승자가 누구인지 아도니야가 알고 있었다. 준수한 인물이었음에도 실패한 사람은 압살롬, 사울, 아도니야다. 인물을 받쳐줄만한 인격이나 신앙이 따르지 않으면 잘난 인물이 오히려 독이 된다.

6.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말은 아도니야가 그만큼 착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윗이 적절하게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암논과 다말의 사교이나 압살롬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적절하게 그들을 훈계하지 못했다(삼하 13:39, 14장). 반면에 풀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압살롬에게 과도한 사랑을 보여준 적은 있었다(삼하 19:1-7).

7. 요압은, 과거에 강력한 라이벌의 가능성이 있는 아브넬을 죽인 일(삼하 3:27)과 망명간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삼하 14장),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우리야를 죽게 한 일(삼하 11장),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바로 죽여버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에게도 결코 쉬운 인물이었다(왕상 2:5-6). 이런 인물이 다윗이 노쇠하여 물러갈 때가 되었으니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보다는 아도니야에게로 왕권이 가도록 한다면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욕심을 내었을 것이다. 어쩌면 반역의 주모자는 요압이었을지도 모른다.

8. 아비아달은, 사울이 늙은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삼상 22장) 다윗에게로 피하여 와서 오랜 세월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했다. 그런데 왜 아도니야의 음모에 동참했을까?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제사장 사독과 대립과를 세운 것 같다: 특이하게도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풀이되었다(7-8, 삼하 8:17). 다윗이 두 나라(자신과 사울)를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까닭에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두 제사장을 언급할 때 항상 사독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독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 같고(삼하 8:17, 15:35, 17:15) 이것이 아비아달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된 동기라고 추정할 뿐이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삼상 2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2:27).

9. 아도니야의 실패는 중요한 사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거사를 치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섭하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을까?

대의명분을 위한 거사라면 몰라도 개인적인 야망이 주된 이유라면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포섭할 수 없다. 요압(군대장관)과 브나야(친위대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포섭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삼하 12:24-25)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 나단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 민족이나 나라를 위한 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종교적 야망 때문에 거사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10. 아도니야가 반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잘못은 무엇인가?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채 미루어둔 것: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다. 적절한 때에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정년이 필요한 것인가보다. 왕도 목회자도 며칠 때를 준비해야 한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가 돌아가신 후에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했단다. 그 뒤를 이을 만한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교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구해 오면 되는 것도 아니다. 준비해야 한다.

11. 아도니야가 에스로겔 근방 소헬렛에서 사람들을 청한 것은 본격적인 거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거사의 시작은 군인들이 궁을 점령하거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법인데 이들은 왜 잔치를 벌이는가?

제사 형식을 취함으로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을 동조자로 끌어들이 수 있고 자신들의 의도를 숨길 수도 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삼상 11:15),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삼하 15:7, 12)도 제사 형식을 취하였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거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12. 나단은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삼하 12:24-25) 결국 나단에게 이 일은 단순한 권력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다.

13. 나단과 밋세바는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가? 지금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밋세바를 취했을 때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한 선지자이다.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 셈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죄를 냉혹하게 지적했지만 용서도 철저하게 한 셈이다.

14. 아도니야가 즉위한다면 솔로몬과 밋세바, 나단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나단이 취한 행동이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밋세바를 움직인 것: 아무래도 총애를 받고 있는 밋세바가 운을 먼저 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목숨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이 순복하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압력이 있을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24절은 의문문이 아니라 강한 긍정문이다. 즉,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라는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제게 미리 알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는 항의조로 이야기하고 있다(27).

15.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와 사심'은 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자신의 맹세도 변함없을 것이다.

16. 아도니야의 즉위식을 주도한 요압과 솔로몬의 즉위식을 치를 브나야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여호와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다. 다윗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솔로몬의 위가 다윗의 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말이다. 자칫하면 반역이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말이기도 하다.

17. '저와 함께 한 손들이'(41, 49절)에서 '손'은 *hand* 인가?

guest이다: 손님들이라는 말의 옛날식 표현이다.

18. 아도니야의 즉위식과 솔로몬의 즉위식을 비교해 보면 후자에 비해 전자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왕의 명, 왕의 노새, 선지자, 기름부음, 백성의 환영, 신하들의 축복: 그만큼 정통성이 없다.

19. 아도니야를 따랐던 무리들이 요나단이 전하는 말 한 마디에 왜 이렇게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가?

진리나 대의명분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쫓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허물어질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진다. 정주영 대통령 후보가 개표 결과 '그 많던 내 표가 다 어디 갔느냐?'고 했단다. 돈 때문에 모인 표는 보기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도니야의 모습도 비겁한 겁쟁이의 모습을 돌변해 버린 것은 소신이나 분명한 명분 없이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소도'라고 불리던 신성한 지역에 죄인이 들어가면 잡아낼 수 없었다. 한 때는 명동 성당에 들어가도 경찰이 어찌지 못했다. 그런데 아도니야가 잡은 제단 뿔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성막) 뿔일 텐데 어떻게 그냥 붙들고 내나?

일반적으로 신성하다고 지정된 지역은 그 지역이 신성한 곳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한 지역을 신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피성도 실수냐 고의냐를 판별하기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니 고의로 사람을 해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다(출 21:14).

21. 반역을 행한 아도니야를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제단 뿔을 잡고 버렸기 때문일까?

제단 뿔과는 아무 관계없다. 선처하면서 동시에 경고다.

전배 (前陪): 벼슬아치의 행사 때 앞을 인도하는 하인

열왕기상 2 장

1. 죽음을 가리키는 우리말 표현도 손가락으로 다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세상을 떠났다, 손가락 놓았다, 초상났다, 고생 끝났다, 좋은 데 갔다, 등등. 다윗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 아주 시적인 표현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기뻐 받아들일 수 있다(빌 1:21-24)

2. 다윗의 유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것(1-4)과 사람들에 대한 것(5-9)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다른 일을 제대로 하는 기본이 된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은 것이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기도 하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것을 어기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사내답게 씩씩하라'는 말이다. 용기를 내라는 말인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일반적인 용기와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하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도 않을 적에게 하나님만 믿고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다(수 5:1-9). 죽으란 말과 좁사한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용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4.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와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3)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정말로 만사형통한가?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던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시늉만 내는 경우도 많고, 만사형통의 의미를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형통의 원어상 의미는 '지혜롭게 되는 것'을 뜻한다.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생을 적게 하는 지혜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5.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은 조건부 약속인가(4)?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처럼 보일지라도 무조건적이다. 우리의 구원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부 잘하면 컴퓨터 사줄게' 조건부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컴퓨터를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몇 안 된다.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왕위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런 말씀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6. 요압은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끌려온 인물이었다(삼하 3:39).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장수 두 사람을 암살해버렸다. 아브넬과 아마사인데 어떤 일로 죽였는지 삼하 3장과 19:13-20:22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아브넬: 사울이 죽은 후에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협상하는 것을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군대장관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암살해버렸다(삼하 3장).

아마사: 압살롬의 난을 요압이 평정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위협적인 언사로 불만을 토로했다. 곧 이어 난을 평정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반군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가 군대장관이 되자 또 다시 암살해버리고 결국은 자신이 군대장관이 되었다(삼하 19:13-20:22).

7. 요압을 왜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솔로몬에게 부탁하였을까? 확실한 답은 알기 어렵지만 추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실도 많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한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도 우리야를 죽인 일로 요압에게 약점이 잡힌 게 있기 때문 아닐까?

솔로몬이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8.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욕을 퍼부을 때 보인 다윗의 반응은 참으로 신앙적이었다(삼하 16:10-12). 그런데 그 억울함을 여태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인간인가? 비슷한 평범한 인간인가?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위대하다. 시므이의 욕을 들으면서 그에게 분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바랐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다. 그 억울함을 여태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해도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9.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전에는 별로 지혜가 없었을까?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6, 9)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부지런하

고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천국의 원리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법'(마 13:12, 25:29, 막 4:25)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위의 여러 형을 제치고 왕이 된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삼하 12:7-25). 어느 한 쪽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10.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치리하였는데 그 전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칠년을 치리하였다. 헤브론에서 등극할 때는 30세였다(삼하 5:4-5).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사울에게 십여년 간 쫓겨다녔다. 온갖 고난을 다 견디고 작은 지방의 왕이 되어 싸우면서 차츰 차츰 세력을 키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과정도 없이 바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11. 솔로몬이 왕이 되자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단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때에는 견고하지 않았나?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거의 제거했지만 내부에 문제가 많았다. 사울의 후손(이스보셋)과 싸움, 자식들의 반란, 세바의 반란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솔로몬의 시절에는 내외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삼하 7:12).

12.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바로 반란 이야기를 하는가?

12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다(=46). 13절은 시작하는 이야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13. 학깃과 밧세바는 어떤 관계인가?

다윗의 부인들: 이런 경우에 언니라고 부르는가?

14. 아도니야의 15절 말은 신앙적인 말인가? 아니면 불만, 혹은 권리주장, 혹은 미련인가?

아도니야가 가장 연장자이면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아주 나쁜 증거다. 뒤의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5. 아비삭을 아도니야가 아내로 취하는 것을 아도니야나 밧세바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왜 죽을죄가 되는가?

고대에 선왕의 첩이나 후궁을 취하여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삼하 16:20-23). 다만 아도니야나 밧세바에게는 이런 생각보다는 단순한 행동(아도니야는 아비삭의 미모나 미련, 밧세바는 동정이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밧세바는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20).

16. 어머니에게 온갖 예를 다 갖추더니(19) 느닷없이 화를 내고 청을 들어주는커녕 도로 처형해버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무안할까?

대의를 위하여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꾀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어머니의 청이긴 하지만 나라의 안위와 관계된 일이라면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

17. 아도니야의 청을 들고서는 대뜸 아비아달과 요압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민반응 아닌가?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도니야의 청을 들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파악한 모양이다. 실제로 요압과 아비아달이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몸을 피한 요압의 태도를 보면 뭔가 일을 꾸미고 꾸민 모양이다. 솔로몬에게는 한 마디만 들고도 열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말이다.

18. 솔로몬이 그만한 일로 아도니야와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을 내어쫓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세속적인 왕권 쟁탈이나 왕권확립을 위해서 피비린내를 풍기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얼핏 보기에는 별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세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왕권에 대한 도전세력을 척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거는 27절과 32절을 들 수 있다.

19. 요압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까닭없이 피를 흘린 것(31): 대외적인 명분은 아도니야와 동일한 범죄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다윗이 당부한대로 평화시에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한 것이다(출 21:14). 다윗이 당부한 것이 바로 이 대외적인 명분을 찾아서 그 범죄를 징벌하라는 것이었다.

20. 요압이 제단 뿔을 잡은 것은 효력이 있는가? 제단 뿔이 명동성당보다 못하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단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장소이기에 거룩한 곳이지 그 자체가 신성한 힘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은 봉사도 구제도 자신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 아브넬과 아마사가 요압보다 더 의롭고 선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넬과 아마사도 원래는 다윗을 대적하여 싸운 적장이었지만 끝에는 다윗과 화평을 도모하던 중에 요압에게 죽고 말았다. 전쟁 중에 요압이 이들을 죽였다면 결코 잘못이 아니다.

22. 요압이 죽임을 당했지만 생전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집에 매장한 것, 재산을 몰수하거나 다른 가족을 죽이지 않은 것: 34절의 '거친 땅'은 유대광야(빈들)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기 집에 매장했다는 것은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몰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23. 시므이는 앞의 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에게 내린 솔로몬의 명령,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노리고 하는 말인가? 나가면 죽이려고 하는 함정인가?

일종의 거주제한 조치인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다윗이 그를 벌하지 않은 이유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한정함으로 베냐민 지파와 격리시키는 점도 있고 감시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이므로 건너지 말라는 것이다. 시므이가 살았던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진 곳이다.

24. 도망간 종을 찾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가드에 가야 한다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잊었을 리는 없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가드는 반대쪽 방향이므로, 오해를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간에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탈이다.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25. 비록 3년이 지났지만 시므이가 가드로 갔다는 일이 바로 보고 되는 것은 시므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제 시므이는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가?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죄(34) 대의명분은 이것이지만 실제로 죽을죄는 왕의 부친에게 행한 죄(35)이다.

열왕기상 3 장

1. 인연이란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성경에 어떻게 이런 단어가 쓰였을까?

불교적 용어인 因緣(서로의 연분)이 아니고 姻緣(혼인으로 말미암은 관계)이다. 그렇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번역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혼인관계'란 단어가 좋아 보인다.

2. 바로 앞 장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솔로몬이 갑자기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일인가? 아니라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부분은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바로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만큼 세력이 컸다는 뜻이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내용은 11장에 가서 시작된다.

3.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다. '다윗 성에 두고... 기다리니' 라는 것에 대해서 대하 8:11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해 보자.

왕비일지라도 이방인이란 점을 감안해서 다윗성에 두었다(1).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궁에는 거하지 못했다(9:24). 다윗궁과 다윗성이 구별되고 있음을 주목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4.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되는 때에는 성전도 없고, 궁도 없는 상태였다(1-2).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게 되었는지 소개될 것이다(3-10장). 가장 먼저 무엇부터 소개하는 셈인가?

나라의 융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3, 4-5). 일천번제는 대표적인 예이다.

5.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리송하다.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긍정적인 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엘리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시절에 시작된 일 같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제사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정적인 면: 여호와를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은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산당 제사가 점점 이교적인 혼합 형태로 발전하여 비판을 받게 된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산당제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6.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며칠이나 걸렸을까? 모르겠다.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밖에!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 하겠다는 뜻일 것: 솔로몬이 기브온(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회막과 놋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대하 1:4-6).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15).

7.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하고 물었더니(5) 솔로몬의 대답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이다(9).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말이 많을까(6-8)? 하나님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 사이에 들어있는 솔로몬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와 찬양이 먼저여야 한다.

8.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는 말이니 그리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이라고 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6):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사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9. 솔로몬의 얘기(6)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 보상이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상급'이 아니라 '큰 은혜'였다고 하는 것은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과분하게 주셨다는 뜻이다. 정당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작은 고수를 잡아서 큰 상을 주신 셈이다. '기분만 좋아봐라. 있는 대로 다 퍼준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고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10.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5) 솔로몬의 답변은 '지혜를 주십시오'이다(9). 그러면 중간에 많은 말(6-8)은 무엇인가?

감사와 겸손: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난 후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다.

11. 솔로몬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다 찾아보자.

중, 작은 아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함(=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함), 주의 배신 백성 가운데 있음(=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없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음(=재판 할 수 없음) 왕의 입장에서 백성이 많다는 것은 자랑

이 되거나 힘을 과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솔로몬에게는 자기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주의 빼신 백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일 뿐이다. 자신도 그 백성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한다.

12.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 왕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다.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고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함: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 것이다.

13.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구하길래?

자기를 위하여 수(수명), 부(재산), 원수를 멸하는 것

14. 壽나 富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인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위하여'가 잘못이다(11). 좋은 예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더 살아야 한다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들 수 있다. 이웃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작정하고 성공하는 것도 훌륭한 주의 일이다. 솔로몬이 합당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주셨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15.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서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보였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바로 지혜이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 것도 그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는 뜻이다. 지혜 있는(여호와를 아는) 그가 지혜롭게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16.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말은 대단히 허무한 말이다. 솔로몬에게는 어떤 말인가(15)?

개꿈이나 돼지꿈, 웅꿈은 허무하겠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이다: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 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실재이다.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귀하고도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진정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다.

17. 만약에 솔로몬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을 들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

전적으로 동의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시더라'고 했을 것이다.

18.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는데(12)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는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자. 바로 뒤의 재판사건은 빼고...

잡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의 일부를 기록하였다: '저가 잡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왕상 4:32-34)

19. 기브온에서 돌아와서 또 번제와 수은제(酬恩, 감사제, 화목제)를 드렸단다. 그럴 바에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뭇하러 갔다 왔다 하나?

기브온의 산당이 크다는 것 때문 같다: 넓은 곳에서 대규모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다시 개인적인 감사를 드린 모양이다. 기브온에는 놋단이 있었고, 여기에는 언약궐이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 명 있어도 괜찮았던 모양이다.

20. 두 여인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점: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른 심리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수밖에 없다.

21.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받은 이에게 주고 받은 저에게 주라'는 이 말에 대한 가짜 엄마의 반응은 자신의 행동이 모성애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면 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을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 말은 질투 혹은 소유욕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22. 참다운 사랑은 이타(利他)적이다. 진짜 여미의 답변을 근거로 설명해 보자.

자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면 그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이타적이다.

23.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다(28)는 말은 왕의 권위가 컸다는 말이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많지만 권위는 서야 한다. 어떻게 권위가 세워졌는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권위가 세워질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열왕기상 4 장

1. 4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은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일 것이다. 그러면 이 장은 무엇에 대한 글이라고 할까?

솔로몬의 정부조직과 통치: 1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기록하려는 내용에 대한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기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었고 다윗의 기록에는 간단한데(삼하 7:15-18, 20:23-26) 솔로몬의 기록은 방대한 편이다. 그만큼 나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조직이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 다윗의 내각은 삼하 20:23-26에 있다. 솔로몬의 내각과 비교해 보자. 1) 가장 중요한 부서는 무엇일까? 2) 새로 생겨난 직책은 무엇인가? 3)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솔로몬의 내각에 유입된 사람은 누구인가?

1) **다윗에게는 군대장관, 솔로몬에게는 제사장과 서기관:**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에 가장 앞에 나오던 군대장관이 솔로몬 시대에는 뒤로 밀렸다.

2) **관리장(12관장 포함)과 궁내대신:** 그렛 사람과 불렛 사람의 장관(아마 친위대)은 발전적으로 해체 되서 군대 장관의 휘하에 들어간 모양이다. 여차피 브나야의 소관이니까.

3) **여호사밧과 브나야,** (아도니람 = 아도람? 참고, 왕상 12:18)

3. 솔로몬에게는 제사장이 몇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많을까?

아사리아(아사랴) 본문에는 세 사람 아사리아(2), 사독, 아비아달(4)이 언급되고 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다. 얼마 후에 아비아달은 파면된다. 사독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솔로몬의 오랜 통치기간 중 제사장의 지위를 오래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솔로몬의 행정조직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성을 지닌 제사장이 아사리아였을 것이다.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인데 아마 그는 일찍 죽었고 손자인 아사리아가 바로 그 직분을 행한 것 같다.

4. 선지자는 국가에 충성해도 별로 소득이 없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맡았지만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단 선지자는 어떤 소득이 있는가?

아사리아와 사독의 아버지 나단이 나단 선지자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 나단일 가능성이 더 크다(삼하 5:14).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사례나 관직을 얻은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 나단도 다윗의 아들 나단일 것이다.

5. 왕의 식물을 준비하는 관장을 12명이나 둔 이유는 지파별로 1명씩 두었기 때문일까?

지파보다는 달별로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7): 지역별 안배라기보다는 아마도 생산량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은 따로 관장을 두지 않았다.

6. 왕이라고 12관장을 두고, 일일분 식물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백성을 착취해도 되나? 이렇게 왕실을 위해서 식물을 예비케 해도 이것이 착취가 아니란 증거가 있는가?

25절: 이렇게 왕실이 튼튼한 것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7. 12관장 중에 가장 넓은 땅을 관할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의 아들 게벨(19): '그 땅에서는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는 말은 그렇게 넓은 땅을 혼자서 관할하였더라는 말처럼 보인다. 실제로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은 요단 동편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 엄청나게 넓은 땅이다. 그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야일의 모든 촌과 바산 아르곱 땅(13, 르우벤 지파의 땅)을 제외하고도 넓다(므낫세와 갓 지파의 땅).

8.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진 것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일까?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창 22:17)이 성취되었음을 뜻한다(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9.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는데 왜 먹고 마시며 즐거운가?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하고 넉넉해졌음을 뜻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 전쟁, 특히 전쟁의 패배가 큰 요인이다. 전쟁도 없고 지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땅도 넓어지고,

10. 솔로몬 왕국의 경계 중에 '하수'는 큰 강이란 말인데 어느 강을 가리키는가?

유브라테스 강(양류)을 가리킨다(창 15:18): 2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

11.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밀가루만 해도 구십석이다(1석은 대략 230ℓ로 추정된다). 몇 명분일까(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 27)? 혹은 소가 30이고, 양이 100마리면 몇 명분일까?

90석은 20700ℓ니까 10350되, (14,000명분으로 계산한 학자가 있었던 모양)

12. 살찐 소는 뭐고, 초장의 소는 무엇인가?

아마도 살찐 소는 비육우, 초장의 소는 방목해서 기른 소일 것이다.

13. 이스라엘의 전국토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은 25절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이다. 그러면 '딤사에서 가사까지'(24)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속국을 포함한 솔로몬의 전체 통치구역: 이 구역에는 다른 왕들이 있었으므로 속국인 셈이다.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본토인 셈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인 셈이다(삼 7:10-12).

14.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벌써 분열될 조짐이 보였었나?

열왕기의 저자가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기록하느라고 이런 표현이 쓰였을 것이다.

15. 숨어서 몰래 포도를 짜거나 밀을 수확하던 때도 있었지(삿 6:11)!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다고? 이 표현을 어디서 봤더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미 4:4, 속 3:10):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는 메시아왕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이다.

16.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차가울 수 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29). 맞는 말이다. 그런데 본문에 솔로몬의 넓은 마음에 대한 예나, 추가설명이 전혀 없을까?

넓은 마음으로 번역된 말의 의미는 문맥상으로 보아 '너그러움'보다는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함'을 뜻한다고 본다(33, *NTV breath of understanding*).

17. 솔로몬의 뛰어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네 사람의 정체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헤만과 에단이란 이름이 시편에 한 번씩 나온다(시 88편, 89편). 만약 이 두 편이 이들의 작품이라면 솔로몬은 몇 편이나 남겼을까?

2편(72, 127): 시편만으로 보면 그렇다.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전해지지 않는 것들을 감안하면 굳이 솔로몬의 뛰어남을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18.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라고 해봐야 고대인들의 지식이 별 것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인의 교만이다: 고대인들의 지혜 중에서 오늘날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은 세월 따라 발전되어온 것이 아니라 BC 3000년 경에 황제의 스승이 황제에게 전해준 것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다.

19. 솔로몬은 다방면에 박학다식했던 모양이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면 어떤 분야에 정통한 셈인가?

문학, 음악, 식물학, 동물학, (정치, 외교)

20.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본문(20-28)이 말하는 특징을 찾아보자.

인구가 많고(20), 땅이 넓고(21, 24), 양식이 풍부(22-23, 25), 평화로움(25-28):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통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21, 24, 25: 솔로몬이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됨).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21. 4장은 연대기적인 기술이 아니라 국정보고서 같은 내용이다. 분야별로 정돈한 것 같은데 다음처럼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각 부분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1) 1-6: 중앙정부

2) 7-19: 지방 편제(행정구역)

3) 20-28: 정치, 경제, 국방

4) 29-34: 문화, 학술

22. 열왕기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에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기록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을 다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자는 뜻이다: 그런 의도로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인구나 땅을 소개하는 장면(20-21)이 그렇고, 솔로몬의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29)이라는 설명도 그렇다.

감역관(監役官): 강제노역자들을 감독하는 자

관장(官長): 분할된 지방을 다스리는 자

26절, 마병이 12000인데 외양관이 40,000인 것은 誤記라고 본다. 4000이 맞을 거란다.

LXX(70인 역)은 27-28절을 19절 다음에 배치했다고 한다. 아마 이 부분이 관장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이미 7절에 있다. 솔로몬 왕국의 부의 규모를 소개하는 말미에 어떤 체계로 이런 것들이 공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 참고로 솔로몬 왕국의 정부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1. 왕: 솔로몬
2.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2), 사독과 아비아달(4)
3. 서기관: 시사의 아들 엘리호렘과 아히야
4. 사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3)
5. 군대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6. 관리장: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7. 대신겸 왕의 벼: 나단의 아들 사밧(5)
8. 궁내대신: 아히살

9. 감역관: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10. 열 두 관장(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함, 각기 일년에 한 달씩):
 - 1) 에브라임 산지: 벤홀
 - 2) 마가스와 사알림과 벤세메스와 엘론벤하난: 벤데겔
 - 3) 아랍못(소고와 해벨 온 땅): 벤헤셋
 - 4) 풀 높은 땅 온 지방: 벤아비나답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 5) 다아낙과 므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벨스안 온 땅: 아힐롯의 아들 바아나
 - 6) 길르앗 라못(바산 아르곱): 벤게벨
 - 7) 마하나임: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
 - 8) 납달리: 아히마아스 (솔로몬의 딸 바스맛으로 아내를 삼았으며)
 - 9) 아셀과 아룻: 후세의 아들 바아나
 - 10) 잇사갈: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 11) 베냐민: 엘라의 아들 시므
 - 12)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 우리의 아들 게벨
- (12지파 별로 구분해 보면 유다 지파에만 관장이 없다. 왕의 직할 지역인가?)

열왕기상 5 장

1. 두로는 베니게(베니키아, 현재의 레바논)의 수도였는데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두로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시돈 사람(6) 시돈도 베니게의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아마 시돈이 베니게를 대표하던 시절에 베니게 사람을 시돈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두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사람은 시돈 사람이라 하면서 왕은 두로 왕이라고 부른 모양이다.

2. 솔로몬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다(삼 5:12-13). 국가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없다. 아마도 히람이 영리했는지 모른다. 강성한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자 자신들에게 풍족한 것을 보냈고, 대신에 이스라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일까?

평화와 곡식(11) 강성한 나라와 싸울 이유는 없다. 친하게 지내서 손해 볼 일은 없는 법이다. 또 베니게는 백향목이 많은 산악지대와 좁은 해안지대로 경작지가 그리 많지 않다. 곡물을 수입해야 할 입장이었다(9). '평일'에라는 원어는 '모든 날들에'라는 말인데 '평소에'라는 번역이 더 자연스럽다.

3.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고 많은 사절들이 찾아왔었는데(4:34) 여기서 굳이 히람의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는 이유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히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건축 이야기다.

4.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라면 아무리 다윗이 전쟁이 바빠도(3) 성전 지을 시간조차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다윗의 사정으로 짓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을까? '바람 피울 시간은 있어도 내 집 지을 시간은 없더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표현에 따르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을 다 정복하기까지 기다리셨다(3) 대상 22:8, 28:3에 따르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성전의 건축자로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피를 많이 흘린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임무만 주시고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이다.

5. 솔로몬이 이룩한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 중요하다. 이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 태평한 나라, 대적도 재앙도 없는 나라(4)

6. 솔로몬이 말하는 성전건축의 원칙은 무엇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5)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어야 한다. 그 분을 위하여, 그 분의 말씀대로!

7.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샅을 당신에게 불이리이다'(6)에서 '당신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whatever you say, NKJV) 충분한 샅을 지불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8.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목재를 운반하는데 바다로 오면(9) 완전히 'ㄷ'자 모양으로 빙 둘러서 오는 셈이다. 왜 그랬을까?

팔레스틴의 특수한 지형 때문에 육로 운반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소위 '와디'라는 고천이 동에서 서쪽으로 험한 계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통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9. 히람에게 공정의 식물로 매년 밀 이만 석을 주었다. 솔로몬이 소비한 것과 비교해 보자.

솔로몬의 소비량은 32850(90×365) 석이다. 아무래도 솔로몬의 소비량보다는 적어야 말이 되겠지. 히람에게 보내는 것 외에 일꾼들에게 주는 것은 따로 있었다(대하 2:10).

10.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를 맺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12) 국가간의 화평도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식하게 마구 대해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위험하다. 막말로 힘을 바탕으로 필요한 목재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벌목꾼의 샅과 목재 값을 잘 쳐주었다. 지혜로운 일이었다.

11.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왜?

그 말씀대로(12)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12. 성전건축에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가?

삼만(13) 이들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석 달 중에 한 달씩 벌목하는 일을 도왔던 모양이다. 종이나 노예처럼 부린 것은 아니다(대하 8:9). 거의 모든 전제군주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담곤(짐꾼) 7만과 채석공 8만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일종의 종이었다(대하 2:17, 왕상 9:21).

13. 동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다. 대하 2:18절에는 3,600명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참고, 왕상 9:23, 대하 8:10) 관리들의 분류방식에 의한 차이라고 본다. 열왕기에는 관리의 수를 고급관리와 하급관리로 나누어 놓았다.

즉, 고급관리 550, 하급관리 3,300이었고 역대기에는 출신별로 이방인 출신 관리 3,600, 이스라엘 출신 관리 250이었다(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4. 벌목에 대해서는 시돈 사람이라면 돌을 다듬는 데는?

그발 사람(18):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외에 특별히 그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돌을 다듬는 기술자였음이 틀림없다. 비유컨대, 실력은 별로 없지만 좋은 집안에서 낳기 때문에 품 잡는 것이 솔로몬의 건축자, 실력은 있지만 배경이 좋지 않아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히람의 건축자, 아무 것도 없지만 오직 실력 하나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그발 사람인 셈이다(허준과 유도지처럼).

15.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물이 겨우 재목과 돌뿐인가?

다른 귀한 것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16. 경복궁을 복원하는데 소나무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쓴다면 어찌겠는가? 일제의 만행을 잊지 말자고 독립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부품을 일본에서 사다가 쓰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떤가?

곧은 소나무가 국내에는 전혀 없어서... 꼭 필요한 부품이 국산이 없어서... 이런 변명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 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성전의 경우에는 편향을 것 같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니...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라서 편향은가?

17.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다. 부친이 다 준비해 주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일도 엄청났다.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3:16) 다투고 솔로몬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일에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열왕기상 6 장

1. 성전 건축은 어쩌면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느낌을 준다. 누가 언제부터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떠돌이처럼 지내다가 이제 정착한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셈이다. 하나님이 정착하셔야 이스라엘도 정착하는 것이다.

2.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요즈음 식으로 하면 건평이 얼마인가? 얼마나 확장된 셈인가?

60x20(규빗) 30x10(m) 300m2(90평): 생각보다 크지 않네!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길이는 꼭 두 배지만 대단하게 큰 건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며 일부의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주변 부속 건물이 컸어야 한다.

3. 성전과 낭실을 묘사한 3절을 도면(도형)으로 그려보자.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다는 말은 낭실의 방향이 90도로 꺾였다는 말이다. 현관문에 전실을 달듯이 건물을 같은 높이와 폭으로 확장한 셈이다. (낭실의 높이는 대하 3:4에 따르면 120 규빗이다. 이상?)

4. 불박이 교창이라고 번역된 말은 환기나 실내조명을 위해서 바깥쪽이 안쪽보다 좁은 창을 말한다. 어디에 설치했을까? 성전과 부속건물의 형태를 먼저 생각해 보고 창 위치를 생각해 보자.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면 거의 15m로 6층 건물 높이다. 부속건물은 3층으로 각 5규빗이므로(10) 성전의 절반 높이다. 그 윗부분에 창을 설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정 높이가 15m인 건물의 벽 10m 정도 높이에 창을 낸 것 같다.

5. 성전의 3면은 부속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이 부속건물은 몇 층인가? 요즈음 건물과 다른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가?

3층, 위층으로 갈수록 방이 넓어진다(5 → 6 → 7 규빗): 들보를 성전 벽에 걸치지 않으려고 아래쪽 벽을 두껍게 해서 위로 가면서 조금씩 줄였을 것이다. 가령, 한쪽의 1층 벽은 두께가 1.5규빗으로 하고 2층 벽은 1규빗, 3층은 0.5규빗 하는 식으로 벽의 두께를 줄이고 동시에 내부 면적은 1규빗씩 늘어났을 것이다. 외벽은 수직이고 내부 벽의 두께가 들보를 얹을 턱의 넓이만큼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

6.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성전 건축이기에 특히 유의한 점이 있다면?

돌보가 성전 벽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부속건물의 돌보가 성전의 벽 속으로 들어가서 두 건물을 연결하거나 서로 지탱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전 건물을 구별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면 당연히 덕을 보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굳이 교회의 덕을 보려하지 않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그런 순수함이 필요할 때가 많다.

전 속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점: 건축 중에 소리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전이라는 점에서 그것마저 배제하고 조용하게 일을 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인부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일하는 것을 보면 별로 마음이 편치 않다. 교회당 건축도 믿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준비 단계부터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아닐까?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신 27:5)는 말씀도 고려했을 것.

7. 전 오른쪽에 있다(8)는 중층 골방의 문은 내용상 하층의 문을 가리킨다(다른 역본 참조). 그러면 골방이 아닌 다른 방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골방이란 부속 건물에 있는 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층 골방'이란 말은 2층 전체(=다락)를 가리키는 말이다.

8. 성전 내부에서 3층 골방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곳의 이름을 본문에 있는 대로 다 지적한다면?

성전 내부 → 외소의 문(33) → 낭실(3) → 중층 골방의 문(8) → 사당다리(8) → 중층 → 3층: 성전 내부에서 바로 제사장이 방으로 가는 방법이 없었다. 제사장의 개인편의를 위한 시설은 없었던 모양이다. 옳은 것 같다! 성전에는 VIP 전용실이 없는 셈이다. 하나님 앞에 누가 VIP겠는가!

9. 다락은 뭐고, 골방은 뭔가?

방을 하나씩 볼 때는 골방이고, 골방이 있는 층 전체를 성전 본체와 비교하면 다락이다. 결국은 같은 말이다.

10. 완공되지 않았는데 '건축이 마치니라'고 하는가(9, 14)? 완공은 38의 표현대로 '필역'인데...

9절은 돌을 사용하는 외형, 혹은 골조 공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12절을 보면 완공은 아닌 것 같고 14절은 내장공사만 남고 외부 공사를 마친 것을 뜻하는 것 같다.

11. '전을 건축했으니 이제 상을 주겠다'든가 해야 할 텐데, 건축했으니 뭘 하라는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성전 건축은 사랑 고백일 뿐 이제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전 건축을 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다. 성전이 성전다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과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13).

12.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루리라고 하신 일 즉,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삼하 7:12-16: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 밖에서 보면 성전은 석조건물이다. 내부에서 보면 어떨까?

마감재는 전부 금이다. 황금의 집이다(20-22, 대하 3:8에 따르면 약 20톤, 대하 3:4 낭실까지 금으로 입힘) 금으로 입혔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 10번이다. 왜 이렇게 강조하나? 황금돔 사원이라는 불리는 사원의 황금색은 바깥에서 볼 수 있다. 성전도 바깥에서 보면 석조건물이다. 내면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

14. 지성소의 장, 광, 고는 동일하게 20규빗이다. 성전의 전체 크기와 비교하면 어떤가?

광은 같고 장은 1/3인데 높이가 10규빗 적다. 천정을 낮추거나 바닥을 높이거나 해야 하는데... 만약 바닥을 높이면 외소에서 들어가는 곳에 경사로나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천정을 낮추면 이상하네! 아마도 바닥을 높였겠다.

15.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다. 누구를 위한 방인가? 그 방에 무엇을 넣어 두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다.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 이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다. 그래서 과거에 궤를 앞세우고 행진하고 싸웠다(민 10:35, 수 6:8) 언약궤 안에는 만사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히 9:4).

16. 지성소의 백향목 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번제단은 바깥에 있는데 더구나 재물을 불로 태우는 단을 백향목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다.

향단(22, 내소에 속한 단) 모세가 만든 성막에도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었고 향단은 성소에 있었다. 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속죄소와 밀접한 관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7.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백향목으로 된 널판이다(16). 거기에 문을 달았다. 그 외에도 또 무엇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였는가?

금사슬(21)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른다. 발 형태인지, 금줄 형태인지...

18. 솔로몬 성전의 내부와 모세가 세운 성막의 내부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성전 내부 전체를 금으로 바른 것: 모세가 세운 성막의 내부 천정은 수놓은 천이었고, 바닥은 맨 땅이었다. 금으로 치장한 것은 빛나고 순전함, 불변성과 고귀함 때문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온통 보석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다. 초림의 예수는 맨땅에 세워진 황금의 집이라면 재림의 예수는 완벽하게 금으로 치장된 성전과 같다. 후일에 불순한 의도로 헤롯이 세운 성전은 외벽에 금을 입혔단다. 외형을 치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성전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성전이기에 금을 입힌 것이지, 금을 입혀야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19. 그룹을 group로 읽은 사람도 있었단다. 스랍과 더불어 천사의 한 계급, 혹은 종류이다(창 3:24). 두 그룹은 마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란히 서 있을까?

날개를 펴고 나란히 서 있다: 마주 보고 있다면 날개끝(각자 10규빗)이 각각 벽(광이 20규빗)에 닿을 수 없다. 모세 성막에서는 두 그룹이 속죄소 위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속죄소의 크기가 2.5x1.5규빗인데 그 크기에 맞춘 것이었으니 솔로몬 성전에서는 엄청나게 커진 셈이다. 거대한 황금 독수리(얼굴은 사람, 몸통은 송아지...)가 외소를 향해 서 있는 셈이다.

20. 내소의 문과 외소의 문은 미단이(좌우로 움직임)일까? 여단이(회전함)일까? 원래는 휘장이었는데? (참고, 7:50)

여단이: 뜰짜귀가 있었다는 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회전했다는 말이다.

21. 내소의 문과 외소의 문(바깥 문)은 크기가 같은가?

외소의 문이 1/20 더 크다(1규빗) 대체로 많은 번역본들은 '1/5'이란 말을 '오각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출입의 빈도를 따져도 외소가 더 커야 한다.

22. 다음 중에서 재질이 다른 것은? <내소의 인방, 설주, 문짝, 외소의 인방, 설주, 문짝>

외소의 문짝만 잣나무: 아무래도 잣나무가 감람목보다 가벼워서 출입 빈도가 높고 큰 쪽에 사용된 것 같다.

23. 돌을 새긴 벽면이나 조형물에 금을 입힐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새김때 맞게 입히는 것(35) 고르게 잘 입히지 않으면 조각 형태가 탈라질 수 있다.

24.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세우는데 13년이 걸렸다(7:1).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7년 6개월 만에 세운 것은 성의 부족 아닌가?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데다,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준비기간은 공기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전 기초를 쌓았을 때부터 7년이다.

25. 솔로몬은 설계와 식양(견본)대로 성전을 지었단다. 설계는 누가했고 견본은 누가 보여주었는가? (참고, 대상 28장)

일단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다윗은 성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며(대상 28:12) 여호와와 손이 그려준 것이었다(대상 28:19)고 한다.

열왕기상 7 장

- 원주율 3.14...를 누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비슷한 수치로 언급된 부분이 있다. 몇 절인가?
7:23: 직경이 십 규빗이요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 성전은 돌로 짓고 백향목 널판으로 덮고 그 위를 금으로 덮었다. 성전을 짓는데 쓰인 나무는 백향목이었다. 솔로몬의 궁전은 뭘로 지었는가?
레바논 나무: 사실은 레바논 백향목이다(왕상 4:33).
-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지은 궁과 하나님의 전을 비교해 보자.
기간: 7년 6개월 ↔ 13년(설명하는 분량은 성전이 6장 전체와 7:13-51까지인데 반해 솔로몬의 궁에 대해서는 12절 뿐이다).
크기: 60×20×30(규빗) ↔ 100×50×30(규빗)
배나 되는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궁전은 성전에 비해 규모가 큰 점, 미리 준비가 될 된 상태, 성전을 짓느라 고 진을 뺀 다음이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솔로몬 궁전은 몇 부분으로 구별되는가?
레바논 나무 궁(2, 10:17, 근무지, 혹은 병기고), 낭실(6), 재판하는 낭실(7), 솔로몬이 거처할 궁(8), 바로의 딸을 위한 집(8).
- 건물을 세울 때는 미리 설계된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을까? 그러려면 정확한 도량형과 기술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아무튼 솔로몬의 궁궐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은?
척수대로 다듬은 돌: 미리 설계된 규격대로 다듬었다는 말이다.
-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한다. 솔로몬이 세운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기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9)
-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꼭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이기에 성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기에 왕궁도 필요하다. 성전과 왕궁이 완공됨으로 명실공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신앙생활과 세속생활은 완전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직장에서, 혹은 불신자들과 도무지 적응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 히람? 어디서 본 이름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협조한 두로 왕(5:1)의 이름과 같다. 동명이인으로 각종 금속을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이었다(대하 2장).
- 히람이 만든 놋기둥은 성전에 있는 것인가? 궁에 있는 것인가?
전의 낭실 앞에 세운 것이다(21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을 잠시하고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왔다(40절). 궁건축이 13년이나 걸린 대역사였지만 성전건축의 이야기 속에 에피소드처럼 끼어 있다. 크고 화려한 궁궐도 성전에 부속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 인생이 보잘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귀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유명한 것이 결코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 놋기둥의 지름은 얼마 정도인가?
약 4규빗(둘레가 12규빗이므로) 높이가 18규빗인데 대하 3:15절에 35규빗으로 나온다. 본 절의 것이 정확해 보인다. 5규빗의 기둥머리도 왕하 25:17에는 3.5규빗으로 나오지만 대하 3:15, 렘 52:22에 따르면 5규빗이다.
- 놋기둥의 모양을 아래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놋기둥 위에 기둥머리, 기둥머리 위에 그물, 그 끝에 닿은 일곱 가닥과 두 줄 석류(42절), 혹은 놋기둥 위에는 백합화 모양(4규빗 높이로)과 석류 200개의 기둥머리, 기둥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의 그물, 그 끝에 닿은 일곱 가닥과 두 줄 석류.
- 두 놋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이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다. 성전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셈인가?
능력 있는 주권자: 능력 있는 그 분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다.
- 모세가 세운 회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길로 보기에 별 것 없으나 속은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점이다. 하나님(예수, 기독교)이 그런 분이시다는 뜻이다.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식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석류: 성전의 기둥머리 장식에 석류가 많이 쓰인 것은 이런 의미 아닐까?
-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 얼마나 크기에 바다라고 불렀을까?
직경 10규빗, 둘레 30규빗, 높이 5규빗, 용적 2000밧, 두께 한 손 넓이(뿔이 아니고 손바닥 넓이로 6분의 1규빗, 3인치) 큰 대야인 셈이다.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대야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했을까? 어쩌면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 아닐까?
- 열두 마리의 소가 사방을 바라보며 바다를 받치고 있다. 가나안인이나 애굽 사람들이 보는 소는 대체로 우상의 의미가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소는 어떤 의미일까?

제사용 희생제물: 왜 열두 마리의 소가 사용되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할 것이다. 다른 이방인들이야 소를 우상의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써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잘만 쓴다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16. 받침을 열 개 만들었다. 무엇을 받치려고?

물두멍(38): 왜 받침이 더 강조되었지? 구조가 복잡한 탓 아닐까? 설명만으로 도무지 모양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17. 어휴, 머리야. 받침 설명이 왜 이렇게 복잡하나? 잘 모르겠다. 받침에 왜 바퀴가 달렸을까?

이동을 쉽게 하려고: 물두멍 하나에 40밧이면 대략 4.5드림 정도의 용량이다. 물을 채우려고 끌고 다니도록 만들었다.

18. 변죽이란 그릇, 세간 등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변죽이란 받침의 옆면 가장자리이므로 판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를 가리키는 듯하다. 즉 변죽과 판은 ()와 거기에 끼여진 판자인 셈이다.

테두리, 혹은 틀

19. 정작 중요한 것은 물두멍인데 받침에 대한 설명은 알아듣기도 어렵도록 장황하더니 물두멍은 설명이 왜 이렇게 간단한가?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꼭 분량이 많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꼭 상석에 앉아야 대접받는 것도 아니다.

20. 13-47에서 만든 여러 것들과 48-50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는 곳이 성전 내부와 외부, 재료가 다름: 더 이상 히람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금을 다루는 기술자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히람은 놋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21. 성경의 장절 구분은 편의상 붙인 것이지만 때로는 어색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장에서 가장 어색한 절 구분은 어디일까?

40절: 히람이 한 일은 ‘... 만들었더라’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구분은 ‘이와 같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2. 성전내부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중에 중복해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불집게(49, 50): 원어상으로는 다른 말인데 번역을 같게 한 탓이다. 다른 번역들은 50절의 불집게를 ‘심지 자르는 가위’로 번역했다.

밧: 22ℓ 이천 밧 = 44000ℓ = 22000되 = 2200말 = 220드림

열왕기상 8 장

1. 이제 법궐을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시킬 차례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 성(시온 성)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두 언덕의 정상 부분이 연결된 성읍이었다. 다윗 왕의 시절에는 아래 쪽 언덕 정상에만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솔로몬이 윗부분의 언덕까지 성을 확장하였고 여기에 성전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온성이라고 부른다.

2. 법궐을 메어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모인 시기가 에다님월 곧 7월이란다. 건물이 완공된 것은 몇 월이었더라?

불월 곧 팔월에(왕상 6:38)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하기까지 다른 기구들을 만드는 기간이었을까? 기구는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7월에 있는 장막절에 맞추느라고 봉헌식을 1달 앞당겼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6장의 8월은 봉헌식까지 포함한 일자일 수도 있다.

3. 솔로몬이 법궐을 옮기는 일에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옮길 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무슨 실수였는지 3, 4절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답해 보자.

반드시 레위인(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할 법궐(민 4:5-15)을 수레에 싣고 옮긴 것(삼하 6:3)

4. 법궐을 옮긴 거리는 얼마되지 않았겠지만 시간은 무척 많이 걸렸을 것이다. 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사로 드렸으니...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 번제도 드렸겠지만 번제보다는 화목제의 성격이었다. 감사축제로 성대한 잔치를 베푼 셈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하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1번).

5. 채 끝이 성소에서 보인다는 말은 지성소가 채의 길이보다 짧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채를 빼서 세워두면 되지 않고?

일단 채를 빼는 것은 안 된다. 원래 법궐은 채를 끼워서 운반하는 형태이지만 빼지 말라고 하였다(출 25:15). 아마도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 아닐까? 채의 길이가 20규빗을 넘는가? 그러면 문을 못 닫는데? 채의 길이가 지성소보다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6. 법궐은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금으로 된 그룹의 날개 아래 모셔진, 금으로 된 상자라서? 이 법궐이 하나님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금으로 된 상자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참된 교회일 것이다. 온통 금으로 치장된 상자 속에 돌판이라?

7. 원래 이 법궐에는 두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만나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다. 체험(만나, 싹난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 아닐까? 만나 향아리(출 16:33-34 여호와 앞, 증거판 앞)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민 17:10 증거궤 앞)는 법궐 앞에 보관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지팡이는 궤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히 9:4 ↔ 출 25:16, 40:20, 신 10:5).

8.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제는 나뉘고 싶어도, 손을 잡고 싶어도, 나뉘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도 없다. 범죄한 이후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계시다는 티만 내신다. 어떻게?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스런 모습을 가린 채(11)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다. 흑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 죽음이나 다름 없는 존재로 추락했는지 잘 알 수 있다. 하나님 곁에 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9.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전을 가득 덮은 구름은 예전에도 있었다. 언제? 누구 때?

모세의 성막 봉헌 때(출 40:34-35) 성막 봉헌 때 여호와와 영광스런 임재를 보여주셨던 분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이셨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 인정하셨다는 뜻이다.

10. 13절과 27절은 비교하면 모순 아닌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서 그 분을 위한 처소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이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화려한 전을 지었어도 그 곳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11.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15-21)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15, 20) 자신이 이룬 것이라는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20) 이루셨다는 고백이다. 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선택한 분도, 다윗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12.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다(18). 다윗이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하 7:5-7, 대상 22:8에 있다. 왕상 5:3-4도 참고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

자.

이스라엘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성전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님은 정작 성전의 양식까지 소상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대상 28:11-19). 단순히 피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다.

13. 껍질이 삼중으로 된 열매는 아주 귀한 것이다. 호두, 밤, 잣, ...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여호와와의 언약: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속죄소(법궐의 뚜껑)를 열어야 볼 수 있으니 삼중 껍질 속에 든 썸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14. 하나님께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25-26) 이래도 되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점만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분의 말씀과 그 분의 뜻에 따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먼저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23-24)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15.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24). 이 말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시는 분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23) 자기 길을 삼가 다윗처럼 행하면(25):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인간의 작은 헌신과 조화를 이룬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다(고전 3:9).

16.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27-53)는 너무 길지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 기도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27, 30)와, 그 분의 말씀에 근거한(29)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전제가 더 중요하다. 대단한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분이 아니냐?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잘 했죠?’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심성과 다른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스테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었다(행 7:47-50). 그러나 성전모독의 원조는 바로 솔로몬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초라한 오두막과 다를 바가 없다.

17.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므로 굳이 특정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굳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29) 이름을 두겠다는 것은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분명히 하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30)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분의 눈이 주야로 그곳을 향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전이 성전인 것이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나 분명하다. 온 세상 어디라도 계시는 분이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다. 이 곳이 바로 교회이다.

18.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30, 32, 34, 39, 43, 45, 49, 54)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성전을 지었는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 성전 자체를 결코 하나님과 동일시 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 호소, 회개하기 위한 장소로 여겼을 뿐이다. 또, 하늘은 어디인가? 단순한 공간개념이 아니라 땅을 초월한 개념으로 쓰였을 뿐이다.

19. 솔로몬의 긴 간구 중에 27-30은 총론적이고, 31-53은 각론인 셈이다. 각론은 몇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7개: 31-32(맹세에 대하여), 33-34(적국에 패하여 돌이켰을 때), 35-36(가뭄), 37-40(온갖 재앙들), 41-43(이방인들을 위하여), 44-45(전쟁터에서의 기도), 46-53(포로된 곳에서의 기도)

20. 하나님께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명확히 가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길 터이니(31)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32)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다. ‘맹세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공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된다.

21. 전쟁에서 지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레 26:17, 신 28:25). 외교상 힘이 없어서, 통치자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 원인이다. 그럴 경우 솔로몬의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33): 성도들도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외교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22. 지금 솔로몬은 한창 잘 나가는 중이다. 나라도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때에 어떻게 전쟁에 패했을 경우를 말할 수 있는가(33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나라의 융성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레 26:17, 신 28:25).

23. 가뭄의 원인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뭄을 만나지 않는 비결이다.

24. 이스라엘이 항상 주를 경외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하는가?

각 사람의 (마음의) 행위대로 갚으셔야(39): 문맥상 이 말씀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유하심을 구하는 말씀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거든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이다.

25.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왜 그런가?

솔로몬보다 훨씬 후에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 선지자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다. 단순한 통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26. 마지막 두 기도(44-45, 46-53)의 공통된 핵심은 무엇일까?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44, 48): 전쟁으로 말미암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올 수 없더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이다.

27. 성전을 짓고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범죄한 경우에도 돌이키거든 용서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솔로몬의 형편은 이런 기도를 할 만큼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보는 인간관은 어떠한가?

전적 부패(46):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구절은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를 들 수 있지만 솔로몬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28. 47절의 '범죄하다'의 원어는 (하타)인데 '목표에서 빗나가다'는 뜻이고, '패역'은 (아바)로 '어그러지고 구부러짐'을, '악을 지음'은 (라샤)는 '악하게 행동함'이다. 죄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가?

작은 잘못에서 적극적으로 고의적인 잘못으로 깊어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간다고 가는 것이 어그러지다가 결국은 고의적인 범죄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29. 고약한 직장 상사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치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50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런 상사의 마음을 간섭하시기를 기도한다: 위치가 뒤바뀌어 원한을 깊도록 해달라거나 죽지 않을 만큼 골병이 들도록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 보인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범죄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의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신들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적군의 문제가 아니다.

30.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살이는 마지막에 조금 했고, 실제로는 온실 속에서 속성재배를 받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 솔로몬이 애굽의 생활을 철 풀무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소: 풀무란 것은 철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가니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만든 주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뜻이다.

31. 솔로몬은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경우에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요청하는가?

주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므로(51, 53): 그렇게 요청해도 되는 근거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비록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산업'이란 '상속 재산'이란 말인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유'라는 뜻이다. 백성도 마찬가지다. 밍다고 갖다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32. 기도는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회개, 찬양, 간구, 요청, 중보, 서원, 작정... 솔로몬의 이 기도(22-53)는 어떤 성격의 기도인가?

중보기도: 왕으로서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중재하는 셈이다. 본문에 사용된 '기도'는 '중재', '간구'는 '호의를 간청함(물상히 여겨 달라)'을 뜻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하 7: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다.

33.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56-60)의 요지는 무엇인가?

감사: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간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34. 일천번제보다 더 하네! 소가 이만이천, 양이 십이만이라. 왜 이렇게 많아야 할까?

화목제이기 때문이다: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을 지닌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함께 제물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 정도 제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35. 그냥 14일간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 될 것을 왜 '7일, 7일, 합 14일'이라고 할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절기를 연이어 지켰다는 말이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혹은 수장절, 초막절) 절기이다. 바로 그 앞의 7일 동안 여호와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다. 66절의 '제 8일'은 장막절을 마친 다음 날이란 뜻이다.

36.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66절을 통해서 설명해 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수준이 낮은 신앙이다.

열왕기상 9 장

1.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면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지 않고?

성전봉헌식 때에는 구름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기도와 간구에 개인적으로 응답하시는 체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2. 성전이 거룩한 것은 솔로몬이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다. 값비싼 재료가 들어갔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다(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탓이 아니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다.

3. 3절은 8:29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셨는가?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4. 다윗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의 표본인 셈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4) 하나님 재일주의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아들의 죽음을 기뻐이 순복하는 것이나, 겹 없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칭찬 받을만 하지만, 잘못도 많았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였다는 점이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도 마음을 온전히 한 것이다.

5.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유다가 망하고 말았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부이다(4). 이 조건을 후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하 7:16에는 조건도 없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6.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고 하신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무슨 대단한 상급을 주시지 않고...

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은 솔로몬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다는 말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으로 다른 선물을 주실 차례이다. 그런데 무슨 요구사항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우리 식구로 인정하겠으니 우리 가문의 법도를 잘 따르라는 식이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2)고 하신 이유와 동일하다.

7. 솔로몬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를 때 받는 복은 무엇이며 따르지 않을 때 받는 화는 무엇인가?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갔는가?

잘 따를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

따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 만국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될 것,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8.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전이라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는가? 때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곳도 엄숙하기 그지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곳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로. 그냥 던져버리겠다(7)

9. 4-9절의 내용과 가장 흡사한 내용이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신명기의 핵심은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10. '부종하여'란 말은 '달라붙는다'는 말이다. 연인들이 꼭 붙어다니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원래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사용하던 말이다(신 11:22, 13:4, 30:20). 그렇다면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라는 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우상숭배는 연인을 배신하는 것이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칼이나 총에 맞을 위험이 크다.

11.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솔로몬의 성전은 벌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 이스라엘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쪽 성벽의 일부분이다. 소위 '통곡의 벽'이다.

12.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지 13년 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왕궁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에 관한 얘기만 하시는가?

성전 봉헌식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계시를 재차 확인하는 셈이다. 이제, 자기 궁을 완공했다는 것은 나라가 한창 왕성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때였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

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언약을 상기시킨 셈이다.

13. 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읍을 양도했을까?

20년간 자재를 공급한 댓가 아니었을까? 히람의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모양이다. 그런 탓에 히람이 불만을 표하는 것 아닐까? 더구나 대하 8:2을 참고하면 히람이 받지 않은 모양이다. 가불(가불)은 '무가치한' 뜻이란단다. 그런데 금 120달란트는 왜 보내나? 잘 모르겠다. 스바 여왕이 같은 양의 금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9:10) 이웃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는 '떡값'이 이 정도인가?

14. 두로와 이스라엘은 우호관계 속에서 20년간 협력을 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섭섭했단다. 누가 잘 못한 건가?

솔로몬이 줌: 두로 왕은 우호적으로 무역을 한 셈이고, 솔로몬은 값을 짜게 매긴 셈이다. 국가 간에는 진정한 우정이란 없다. 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법이다. 힘이 있는 쪽에서 섭섭하게 하기 마련이다. 히람이 참을 수 밖에!

15.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한 곳은 네 군데라고 할 수 있다. 수도(여호와의 전, 자기 궁, 밀로, 예루살렘 성)와 북쪽 변방 두 곳(하솔, 므깃도)과 남쪽 변방(게셀)이다(15). 그러다가 시작한 김에 여기저기 더 많은 성을 건축한 모양이다(17-19).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본문에서 찾는다던?

무역으로 인한 풍족한 재정, 히람의 우호적인 협조, 풍부한 노동 인력: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큰 배경이겠지만.

16.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서 그 땅에 남은 자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다(신 7:16, 수 23:13).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좋은 일꾼이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올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비록 잘못하여 생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17.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감독자나 군사로 부린 이유는 무엇일까? 노예로 쓸 가나안 쪽속이 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예 25:39): 출 21:2, 신 15:12절의 근본정신은 동족을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후에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보면 그의 말년에 이 정신이 어느 정도 퇴색되었던 모양이다.

18. 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이야기는 8장에서 끝났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응답을 주신 것과 여러 성읍을 건축한 것을 말하고 난 후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25)는 것은 이상하다. 이 말은 '성전을 완전하게 하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단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로 여기에 이 말을 삽입했을까?

성전은 세우기만 하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완성되는 것이다.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교회당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뭘하나?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은 진리일 수도 있지만, 능력 없는 작은 교회의 시기심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19. 26-28절은 솔로몬의 무역에 대한 기록이다. 주무대는? 무슨 재주로? 규모는?

주무대: 홍해의 아카바만 최북단에 있는 엘랏(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오빌까지. 오빌의 위치는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동북부 해안이라고도 하고...

재주: 히람의 종들에게 배웠다. 히람의 종들이란 두로와 시돈지역에 거하는 베니게(페니키아)인들이다. 지중해에 면한 좁은 지역에 거하는 관계로 일찍이 항해와 선박 건조에 뛰어난 기술을 지녔었다.

규모: 금 42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3kg이다. 14.4톤이네!

20.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9장은 모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건축 사업이 각각 후대에 어떤 일과 관련이 있는가?

유다의 분열, 멸망: 혹독한 노동이 나라의 분열과 관련되고, 우려했던 우상숭배는 끝내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열왕기상 10 장

1. 스바 여왕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방문했을까? 본문을 근거로 2가지를 찾아보자.

시험코자(1) 스바 여왕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마 12:42).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존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 옛 선비들은 만나면 시를 읊으며 은근슬쩍 실력을 겨루었고 강패들은 만나면 주먹질부터 하는 습성과 닮은 점이 있다.

통상 교섭(2, 10, 13)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하여 무역기지 역할을 하던 나라였다. 엄청난 무역을 하고 있던 솔로몬(9:26-28)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스바 여왕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놀랐지만 건축물 중에 정작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놀랐다(5). 그 내부를 보았으면 어찌 되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이방인 여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 보지 못했다. 4절의 '건축한 전'은 궁전이다(대하 9:3)

3. 소문은 실재보다 과장되게 마련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던가? 스바 여왕의 말대로라면 솔로몬의 소문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왜 그럴까?

과장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지혜로웠고, 번영했던 모양이다.

4.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알아볼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9절의 솔로몬에 대한 찬사가 짧지만 멋진 표현이다. 적절하게 수정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사용해 보라. 얼마나 멋진 문장이 되는지!

5. 11-12절이 여기에 왜 삽입되었는가? 배경인가? 무역품목인가? 아니면 스바 여왕이 구한 것인가?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것이고, 11절부터는 무역과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13절도 무역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

6. 스바 여왕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답례로 준 것은 그보다 많았을까 적었을까?

왕의 규례(13)란 이런 경우의 답례에 대한 관례일 것이다. 그 외에 구하는 대로 주었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넉넉하게 주었을 것이다. 통상교역의 수준을 넘는 거래라고 보아야겠다(대하 9:12).

7. 솔로몬 정부의 수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세입금(14)과 무역을 통한 수익(15)이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일 년 세금의 합계가 666달란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일만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액수일까(마 18:24-35)?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 일만 달란트는 정말로 엄청난 액수이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평생에 1달란트도 만져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거저 주셨다는 배경 없이는 도무지 왜 이렇게 거액을 언급하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8.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 데에 600세겔의 금이 들었단다. 1세겔을 11.4g으로 계산하면 600세겔은 약 7kg이다. 조그마한 아령 하나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금을 입혔다. '쳐서 늘인 금'이란 얇게 편 금을 가리킨다. 성전 벽을 만드는 방식과 같았을 것이다.

9. 큰 방패 전체와 작은 방패 전체를 비교하면 금이 어느 쪽에 더 들어갔을까?

큰 방패: 큰 방패에는 12만 세겔, 즉 40달란트가 들었고, 작은 방패는 900마네, 즉 45000세겔, 즉 15달란트가 들었다. 작은 방패는 큰 방패의 1/4이었다(600세겔 대 150세겔).

10. 솔로몬의 사치가 어느 정도인가?

금으로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다: 금 방패는 장식용이거나 의전용일 것이다.

전후후무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보좌가 없었다. 유목민들에게는 의자 문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 창 41:40의 보좌는 애굽 왕의 것이고, 왕상 7:7의 보좌는 10:18절의 보좌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으로 보좌를 만든 셈이다. 이걸 사치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부귀와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고대에는 은도 금처럼 귀하게 여겼단다. 얼마나 금이 흔했으면 그랬을까?

11. 솔로몬에게는 두 개의 선단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는 오빌 선단이고 또 하나는 다시스 선단이다. 이 선단들은 각각 어떤 품목을 실어날랐는가?

오빌 선단: 금과 백향목

다시스 선단: 금과 은, 상아, 잔나비, 공작. 상아, 잔나비, 공작은 인도산이다. 다시스란 말이 스페인이나 지중해 건너편의 특정한 지명을 뜻하는 외에 '제련소'의 물품을 멀리 운반하는 배'를 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한다. 솔로몬 당시의 제련소는 에시온 게벨에 있었다.

12.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 왔단다(24-25).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열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물을 바치려고(=26절 끝, 해마다 정한 수): 예전에 엄청난 재물을 굶어모은 대통령이 있었다. 경제계 인사들

이 대통령과 식사하려면 거액을 가지고 갔단다. 밥 한끼 얻어먹는데 수억이 들었단다. 밥 먹으러 간 걸까?
그 돈은 밥값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국들에게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13. 다른 번역 성경(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대부분의 영역본)에는 28절의 '때로'란 말 대신에 지명을 뜻하는 '쿠'에'란 말이 있다. 원어의 이 단어가 '부사'인지 '고유명사'인지 이견이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지명을 가리키는 쪽이 우세한 모양이다. 그렇더라도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 한다면 '때로 정가하여'란 말을 세 음절로 바꾼다면?

도매로: 도매가격으로 사서(28) 헛 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소매로 넘겼다는 말이다(29).

14. 미국이 이란이나 이라크와 싸울 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이란이나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미사일이었다. 그 미사일은 이전에 미국이 지원해준 것이었다. 솔로몬이 무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말과 마병은 요즈음 식으로 하면 첨단 무기에 해당하는데 애굽에서 사서 아람 왕들에게 팔았다. 나중에 아람 왕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약해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면서도 대량학살무기 방지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안심하고 대량학살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15.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한 기록으로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럽다.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이 있다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처럼. 무슨 걱정이 되는가?

아름다운 여왕의 등장, 너무 화려하다는 점, 말을 많이 두는 것: 돈 많고 시간이 있을 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던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신 8:17-18),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신 17:16)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솔로몬이 말이 낱 모양이다.

스바(Sheba): 남 아라비아의 백성 및 그 땅에서 홍해를 거쳐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 구스)에 식민한 백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수원(隨員): 수행원

은미(隱微): 알기 어려움(난해하고 복잡하여)

현황(眩恍):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황홀함

마네: 세겔의 50배 중량, 약 571.2g (1달란트는 3000세겔, 1마네는 50세겔)

열왕기상 11 장

1.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을 경계함인가?

우상숭배: 이방 여인이 문제라기보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을 좇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방여인만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처음 얼마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절대권력마저 녹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힘도 없는 여자지만 사랑하게 되면 절대권력보다 더 위력적인 존재가 된다.

2.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이 어떠한가?

이방여인들을 사랑한 것(아하브: 집착, 성적인 욕망에 집착함) → 그들의 신들을 용납한 것 →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이방 신들을 섬김): 우상숭배도 처음부터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권력과 힘을 너무 과신한 것 아닐까? '연애하였다'는 말은 '다바크'(하나님께 '친근히 하다'로 번역된) 즉 달라붙다는 뜻이다.

3. 부인이 1000명이란 말인데 이렇게 많으면 실제적인 부부가 아니다. 그러면 뭐지?

그냥 과시용이다: 고대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다. 솔로몬이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가지고... 후비와 비빈은 어떻게 구분하나?

4. 솔로몬은 10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과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다. 부인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신 17:16-17에서 금한 것 세 가지를 다 어겼다. 부인을 많이 두는 것도 미혹될 것을 염려하여 금하였다.

5. '솔로몬이 많은 이쪽 후비들을 데렸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옳지 않은가? 이스라엘로 시집온 후비들은 오히려 자기 신들을 열성적으로 섬겼다. 솔로몬은 희미한 그리스도인의 대표 아닐까? 결국, 많은 이방인 부인을 거느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솔로몬의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부인을 여럿 두고 싶은 사람이 하는 소리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따져야 할 때도 있지만 이유를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할 때가 더 많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시킨 일인데...

6.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단다(6). 어딘들 여호와와 눈 앞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7.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서도 징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빼앗으려면 다 빼앗지 왜 일부를 남기시나?

다윗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12-13, 32, 36):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시지 않는다.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키시려는 몸부림이다.

8. 대적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14).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킨 것이 언제일까? 작은 아이일 때? 애굽에서 망명생활 할 때? 에돔에 돌아와서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닷을 미리,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기도 전에 준비하였을까? 궁금하지만 그렇게 유용한 질문은 아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솔로몬의 즉위 초기에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왔지만(21, 25) 오랫동안 솔로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것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이다. 그렇다면 요압이 에돔을 정벌한 것은 4, 50년 전이다. 하닷의 일생은 씨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만 싹이 나고 자란 셈이다. 르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좋지 못한 씨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런 씨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9.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14)는 말은 왕이 되지 못한(왕족) 상태로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할 힘이 생겼다는 말이다. 하닷이 한 일을 하닷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독립전쟁: 하닷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혹은 우연한 계기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

10. 14절과 15절부터 22절, 25절의 시제를 서로 비교해 보자.

14절과 25절은 같은 기간으로 솔로몬이 즉위하고 징계를 받기 전 기간이고 15-22절은 다윗의 에돔 정벌부터 솔로몬이 즉위할 때까지다.

11. 다윗이 에돔을 정벌한 내용은 삼하 8장에 있다.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자'란 누구일까? 에돔 사람일까? 이스라엘 사람일까?

이스라엘: 요압이 가서 장례를 치렀으니 정벌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일 것이다.

12.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이것은 바로의 착각이다. 무슨 착각인가?

절대 권력과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고향을 등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고향을 대신할 수 없다.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부인에게 '남편이 있지 않느냐?'고(삼상 1:8) 말은 그

렇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자리를 남편이 채우지 못한다. 어쩌랴?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빈 자리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하닷의 답변도 틀린 말은 아니다. '바로가 재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는 없나이다'라는 뜻이다.

13. 르손이 왕이 된 것은 언제이며 솔로몬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언제인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즉위 초기라고 보아야 한다(소바 점령 때이니까). 솔로몬에게 위협이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때.

14.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다니? 언제 그랬지?

본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시도한 것은 르호보암 때의 일이다. 솔로몬에게는 대적할 기회도 없었다. 말하자면 26절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되어진 여로보암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서두인 셈이다.

15. 왜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을(26)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케 하나(28)?

요셉 족속이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때로는 어느 한쪽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니 에브라임 족속이나 요셉 족속은 같은 말이다. '부지런하였기 때문에'라는 답은 그 다음의 일이다.

16.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의 아들로 큰 용사요, 감독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망명객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런 신분의 변화는 누구 탓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선지자 아히야, 하나님, 솔로몬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히야가 왜 엉뚱한 짓을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17.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닌가?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야망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중에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한 왕의 표본이 된 것도 왕권을 유지하려다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솔로몬 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는 법인데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좋은 신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신을 잘못했다. 하나님을 떠나면 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법이다.

18. 벌정한 새 옷을 열 두 조각은 내다니? 이왕지사 찢을 거라면 흰 옷으로 하지?

새 옷은 솔로몬 왕국, 12조각은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 새 옷 한 벌이 문제냐?

19. 12조각 중에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으니 솔로몬에게는 몇 조각을 주었는가?

한 조각(32, 36): 나머지 한 조각은? 나중에 실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다(12:21). 두 조각이라고 말해도 될 것을 굳이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차지할 10지파에 대비시키려는 의도일까? 사사시대의 내란으로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가장 미약한 지파였던 점과 두 지파의 지경이 인접하여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20. 주시려면 다 주시지, 한 조각을 남기는 이유를 여로보암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또, 하나님의 의도는?

여로보암의 생각: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율례, 명령)를 지켰으므로(34, 38)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다윗처럼 잘 지키면 이렇게 보존될 것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다윗처럼 될래? 솔로몬처럼 될래?

하나님의 의도: 한번 작성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 등불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리라(36).

21. 다윗의 순종으로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르호보암이 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표면적으로는 억울해 보인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르호보암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가 나누어질 만한 동기, 즉 지파간의 알력, 여로보암의 권력욕, 하닷, 르손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없었을까? 돌이키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바로 나라를 쪼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주신 것이다.

22.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멋대로 아닌가?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죄하고 실수하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지사다. 잘 하든, 못 하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잘못했음을 알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삼하 12), 억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삼상 24, 26장, 삼하 16장...) 등이 그 예이다.

23.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이유(31-39)를 아히야가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길을 벗어나지 말라.

24.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강력한 어조를 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38절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인 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력이 없으실까?

여로보암의 의지를 무시한 채 기계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존중하신다(37-38).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25. '다윗의 위'와 '여로보암의 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다윗의 위는 솔로몬의 범죄함에도 '영원하리라'고 하시지만 여로보암의 위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고 조건부로 말씀하셨다.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39) 집을 허무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집은 아들 대를 못 넘기고 무너지고 만다.

26.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비밀스럽게 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발설했을까?

아마도 여로보암: 선지자의 말을 믿고 무언가 행동에 옮겼을 것이다(39절과 40절 사이에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고 했으니 좀 기다렸어야 하는데...

27. 10장과 11장 사이, 39절과 40절 사이, 40절 이후에는 수많은 내용이 생략되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하는가? 거기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

솔로몬의 행장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단순하게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행장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28. 나라가 쪼개진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히야: 각각에게서 이유를 찾아보면 다들 이유가 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한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섭리와 자유의지라는 두 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시돈의 아스다롯: 여신, 아세라와 성격이 비슷함, 풍요의 신으로 성적인 사랑을 조장함

암몬의 밀곰: 물룩과 동일하며, 인신제사로 유명함

모압의 그모스: 물룩과 쌍둥이 신으로 태양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제사 의식이 잔인하고 음란함

열왕기상 12 장

1.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기혼으로 갔었다. 예루살렘의 바로 옆 골짜기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는 왜 먼 세겜(예루살렘에서 약 50km)까지 갔을까?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북쪽의 열 지파를 가리킨다. 이들이 르호보암이 즉위하기 전에 어떤 형태론 왕의 인준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 같다.

2. 무리들이 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을까?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음: 학생회장 선거나 노동조합장 선거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야 표가 많이 나온다. 학생회장 후보가 교장선생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학생부장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고 공약을 하면 당선되기 어렵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에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거칠게 나가는 것이 표를 얻는데 훨씬 유리하다. 자기들 대신에 용기를 내줄 사람을 구하는데 여로보암이 적격이었을 것이다. 전적으로 있으니...

3. 솔로몬은 위대하고 좋은 왕으로 소문이 났는데 백성들의 평가는 왜 좀 다를까?

유능한 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이 백성을 수고롭게 했을 수도 있다. 튼튼한 나라를 세웠다는 자긍심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고 부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세금도 없고 왕이 자신들을 편하게만 해준다면 좋아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줄여주어도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반면에 왕이나 지도자는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유능한 상사를 모시고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죽을 지경일 수도 있다.

4. '군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반항인가?' 라고 나오면 할 말이 없다.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억누른다면 위험한 사태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군의 사항을 군의 사항으로 듣지 못하는 목회자의 권위주의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가 한 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 백성들의 요구가 반역이 아니라 진짜 군의사항이란 점을 설명해 보자.

반역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1). 세겜에 모인 것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청을 들어주면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무리한 청으로 보이진 않는다. 높은 신하들이 보기에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흘의 시간을 달라는데 백성들이 순순히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온 것이나, 르호보암의 답변에 실망했을 때도 바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5.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왜 거부했을까?

'박력도 없고, 시시해 보이고, 체면도 서지 않고, 그래서야 왕의 권위가 서겠나?' 싶었을 것이다. 압살롬도 그런 생각으로 후세의 계락을 좋아했다가 망하고 말았다(삼하 17장). 르호보암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오늘날 문제 많은 교회들의 모습도 이런 왕의 본분을 잊은 르호보암을 닮은 지도자들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

6. 원로들의 충고는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까?

자원하는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이런 관계여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

7. 르호보암과 젊은 참모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없었다.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이 왜 위험한가?

의견차가 없다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나 마찬가지다. 제대로 갈 때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불편함을 각오하고서라도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안다면 유익이 대단히 많다. 생각이 똑같은 동업자는 동업자가 아니다. 부부는 어떤 점에서는 철저히 다투어야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철저히 달랠아야 한다. 다른 점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8.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가 사용한 것이 채찍이라면 나는 전갈을 사용하겠다' 르호보암의 이 말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허풍, 과장, 허장성세: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장하는 법이다. 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일수록 외모를 치장하는 법이다. 백화점에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속물근성을 적절하게 자극한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면 마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자극한다.

9. 왕을 보고 '백성의 종이 되라'는 말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하라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멋있어 보이는가?

당연히 후자: 멋있어 보이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박력, 용감, 과단성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듣기 좋은 말에 너무 솔깃해서는 안 된다.

10.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15, 24) 르호보암에게는 책임이 없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거나 간섭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이었더라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돌이키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니므로.

11.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하와는 '내 뼈 주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지만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로 바뀌었다. 죽니 사니 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돌변하

는 것이 인생임을 잊지 말자. 그런 예가 본문에 있는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됨(16): 다윗은 위대한 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자이지만 마음이 변하고 나니 그냥 평범한 이새의 아들일 뿐이다.

12. 네 집이나 돌아보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다. 한국식으로?

집에 가서 애나 봐라.

13.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을 거역하고 돌아설 때 르호보암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반성하든지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가든지 둘 중의 하나다. 어느 쪽을 택했는가?

강경하게 밀어붙임: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다는 것은(18)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인물을 보내서 휘어잡으라고 했음을 뜻한다. 실망스런 마음으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반발할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결국 자신도 황급히 도망쳐야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이고, 이 철딱서니야!

14.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나라가 쪼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임해야 안 되나?

당연히 싸워야지: '분리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러면서 군사를 일으키는 게 정설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한다고 내란에 돌입하고... 체첸이나 그루지야 공화국에 대한 소련의 태도처럼.

15. 여로보암의 등극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가 신정정치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민주적인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 원칙은 분명히 그러한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민주주의가 우민정치라고 비난받은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것이다(중국의 전설적인 3황 5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도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재가 가장 나쁜 제도인 것을 말할 것도 없다)

16. 르호보암이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이다. 10지파가 반역을 한 것, 가지고 있던 힘을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21-24), 그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 르호보암이 이 본문(21-24)을 읽는다면 어느 표현이 가장 기분 나쁠까?

유다 왕 르호보암(23): 유다 왕이란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아버지께 비한다면 갑자기 쪼그라 들어버린 지방의 왕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17. 세겜을 건축하다니? 전에도 있었는데?

수도로 삼고 수도에 걸맞은 건설 작업을 했다는 말이다.

18.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단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후의 마음을 비교해 보자.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왕이 되고 난 후: 왕권을 잘 지켜야 하는데...

19.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두 군데, 단과 벧엘에 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지리적 요인: 벧엘은 가장 남쪽, 단은 가장 북쪽이다. 백성들에게 순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을까?

레위 지파(31): 당장 할 일도 없어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레위인과 이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하해 버린다(대하 11:13-17).

21. 여로보암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겠는가? 자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자신은 다만 ()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란단다.

방법: 예루살렘 대신 벧엘과 단,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유월절 대신 8월 15일을 절기로 지키고, 보통 백성일 망정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을 종교개혁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물론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지만 말이다.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개혁을 시도한 영국의 어느 왕과 비슷해 보인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통치자들이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정작 자신은 죽기 직전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종교를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용했을 뿐이라는 평가도 있다.

열왕기상 13 장

1. 여로보암이 많이 컸다. 다른 이스라엘(유다)의 왕들보다 더 큰 증거는 무엇인가?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 제정일치의 전제군주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2.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보고 외쳐야지 왜 단을 보고 외치나?

여로보암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 시지 않은 것(창 3:15)과 비슷하다.

3. '다윗의 집 요시야'라면 유다의 왕이 북쪽을 다스린다는 말인가?

남쪽 유다 왕 요시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단을 훼파할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이루어진다.

4. 선지자가 하는 이 말(2)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말이다. 무슨 대비책을 세웠는가?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무사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마저 칠 수 있었다(8-9).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손이 마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벨엘로 온 셈이다. 다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어떻게든 여로보암의 손에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있었을 것이다.

5.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마르고... 기도하니 고쳐지고...'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런 능력은 보조적인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외친 메시지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 곳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는 것이다. 설교를 듣고도 핵심 내용보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더 기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6. 이 선지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말해보자.

자신의 손이 마른 것과 선지자의 말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손만 나으면 다냐?

7.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반나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 먼 길은 아닐 것이다. 벨엘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북쪽이지만 국경에 바로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는지 분명 하지 않다. 다만 '이 곳에서'라는 표현(8, 16)이 국경을 넘어 벨엘까지를 뜻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다. 중요한 것은 거리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곳에서 교제란 전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의 선포이다.

8.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도로 가지 말라는 것을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가 무엇인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쉬는 것(14): 빨리 돌아가야지 쉬기는 왜 쉬어가지고? 왕을 책망하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얼마나 긴장되고 흥분되는 일인가? 이런 일은 진행 중일 때는 몰라도 일이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 무척 피곤 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빨리 돌아와야 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9. 늙은 선지자는 왜 속였으며 무엇을 속였는가? 아니면 고생한 선지자를 대접한 것인가?

고의로 괴롭히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나름대로는 대접한다고 한 것 아닐까? 여로보암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출해 버렸다(대하 11:13-17). 어쩌면 이 선지자는 그러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지내다가 모처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본 것 아닐까? 더구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11) 자의는 아닐지라도 여로보암에게 협력하고 있었던 것 같다.

10. 선지자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과 내게 말씀하신 것이 왜 다른가?' 아닐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꿈이나 환상은 무시해야 한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유다의 선지자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 한다. 자칭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11.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말을 듣지 않고 떡을 먹거나 물을 마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벼락같이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셨으니 말이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시던 분이 아닌데...

12. 13장은 온통 미스터리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줄줄이 나온다. 어떤 의문점이 있는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쉬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이 먼 길을 가서 돌아올 때까지 왜 먹지도 마시지도 같은 길로 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목숨을 걸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선지자를 이렇게 사소한 일로 죽여야 하나?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

사자가 선지자를 죽이고 시체를 그냥 두었다.

사자도 나귀도 시체 곁에 그냥 있다.

마지막에 보면 늑은 선지자는 꽤 신앙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고를 쳤을까?

13. 사자가 선지자를 죽인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찾는다면?

선지자를 죽이고 그대로 옆에 있는 것: 맹수는 자신이 위험하거나 굶주리지 않으면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 선지자를 죽이고 잡아먹지 않고 그냥 곁에 있는 것이나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는 것(28)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14. 늑은 선지자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뵈엘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29-32)

15. 이 장의 미스테리를 해결할 열쇠는 32절, 33-34이다. 왕하 23:17과 관련지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300여년이 흐른 후에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로보암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고를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홈페이지 설교란의 '어느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으니 자신에게는 얼마나 중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케 한다.

열왕기상 14 장

1. 여로보암은 아직도 선지자 아히야의 능력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를 만날 날이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고하면서 당부한 말(11:38)을 깨끗이 버렸으니...
2.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탈이 난 셈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야 옳았는가?
자신이 왕이 될 것과 왕이 되거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던 사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듣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인과의 습성이다.
3.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에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신경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장'이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 왕이 내리는 선물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의 예물이다.
4.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 셈이다. 눈먼 늙은 선지자를 속이기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의도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라면 게임이 되지도 않겠지만 눈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도무지 볼 수도 없는 장래사까지 꿰뚫고 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다.
5. 자기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가는 것을 선지자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고 부인을 보냈단 말인가?
장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확실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한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점쟁이를 대하는 것과 같다.
6. 여로보암의 처여? 본인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왜?
왕비마마를 보고 여로보암의 처? 지금 하는 짓이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더라면 '마마' 소리를 들을 텐데 이게 무슨 창피냐!
7. 아히야를 만난 여로보암의 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우리말 속담은(6-16)?
꿈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남
8.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인가(7-9)?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자: 내가 네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10-16은 배신자에 대한 징벌이다.
9. 선지자의 책망은 '왜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기분 나쁘게 왜 다윗과 비교하나?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왕상 11:38).
10.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렇게 망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왕상 11:28, 12:2, 12:20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에게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인물 이었고(11:28),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발탁되었고(11:28), 백성들이 자신을 불러서 대표로 삼았고(12:2, 12:20)... 아히야 선지자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죽을병이란 진단을 받고 은사를 받은 주의 종에게 기도로 병을 고치고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진을 했습니다' 이러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
11.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원인을 잘 나타내는 표현을 아히야 말 속에서 찾는다면?
너를 위하여(9):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빛이 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자신의 것마저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을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한다.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길래? 대조적인 표현을 찾아보자.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에(9):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시 25:15, 119:37). 시선이 미치지 않는 '등 뒤'는 모욕과 경멸의 상징이다. 하나님을 쓰레기보다 못하게 취급했다는 뜻이다.
13. '여로보암에게 속한, 벽에다 오줌누는 자들'을 우리말 성경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라고 부드럽게 번역했다. '거름'도 마찬가지로, 좋게 말해서 거름이다. 직역하면 '굴러다니는 것'이다. 굴러다니면서 거름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동 명어리다(영문 번역은 dung으로 교과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잖치 못한 표현이다): 우리 말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지만 원문상 거친 표현이다. 상황이 상황이니만치 전혀 부드럽거나 점잖은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말갈개' 치운다.
14. 여로보암의 죽을 아들(13)은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복되다는 말인가? 아니면 가장 신실한 아들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끔찍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사 57:1) 이 아들은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는 경고의 희생물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심복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13장의 선지자처럼). 그 심복은 주인의 뜻을 알고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기도 한다. '아비'는 아버지,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이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범죄하기 전에 태어나서 이런 이름을 얻었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죽음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겠다.

15. 여로보암이 궁금했던 것은 아이의 생사였다. 아히야를 통해서 답을 얻었는가?

진짜 궁금한 것은 생사가 아니라 '사는 것'이었다. 만약 죽는다면 살아날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을 터인데 확실하게 죽을 것이란 대답을 들었으니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한 셈이다. 아니, 멸족을 당할 것이란 엄청난 보너스까지 얻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알아보지 않는건데...

16. 여로보암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도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실 때 인간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하신다. 즉 여로보암이 인간적으로 보아서 왕이 될 만한 재질은 갖추고 있었기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행동을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신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힘들게 만든 요인이다. 그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증거이지만.... 하나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누구를 대학에 합격시킬까?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룬다.

17. 새로 일으킬 왕(14)은 어떤 사람일까?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사람이 선택되었다.

18. 갈대도 종류가 많네! '상한 갈대'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물에 흔들리는 갈대'를 서로 비교해 보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상한 갈대는 스스로 넘어질 만큼 약한 존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 물에 흔들리는 갈대는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 결국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에서 자라던 갈대가 큰 물에 뿔쳐서 하수 밖으로 흩어질 것이다(15). 하수는 유브라데스강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200년 쯤 뒤에 앓수로 잡혀간다.

19. 왕의 범죄가 특히 무서운 것은?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함(16, 22): 지도자의 잘못은 자신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다. (마 23:13)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다면 왕이 범죄할 때 백성은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20. 여로보암의 처가 돌아간 곳이 디르사이다. 디르사가 언제 등장했지?

옛적 가나안인들의 성읍이었으나(수 12:24)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은 모양이다. 열왕기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세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란다.

21. 성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22년간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은 역대지략에나 찾아보란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원인자가 되었음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있다.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22.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평안하게 죽나?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평안하게 죽은 것은 아니다. 대하 13장을 읽어보라. 80만 군사 중에 50만이나 죽는 참변을 당했다. 여기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느낌을 준다.

23. 여로보암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는 왜 또 이 모양인가? 르호보암 5년이라면 왕이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어머니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21, 31).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둔 것이 화근이었는데 그 이방인 부인의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두 번씩이나 언급한 것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24.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질이나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국민의 가장한 일이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었는데 자기 백성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기분인가?

폭발 직전의 질투: 노를 격발하였더라는 말은 질투를 일으키다는 말이다. 일반적인 배신감을 넘어서 신부, 혹은 아내가 배신한 것 같은 감정을 뜻한다.

25.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하지 못하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신 성마져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내신 자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다.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이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6.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버락을 맞는 법인데(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아브람과 이삭을 만났던 바로나 아비멜렉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네! 누구?

세상에! 유다의 범죄로 인해 시삭만 황재했네!

27.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의전용, 의식용이었던 모양이다.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를 들고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 어떨까?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타는 기분? 60평 아파트에 살다가 사글세방으로 옮긴 것?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지나갔음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금방패가 변하여 놋방패가 되었다!

28. 왕상 11:13, 32, 36의 말씀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삭의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15:4) 체면이야 많이 꺾였겠지만 르호보암이 여전히 왕으로 위엄을 부리고 있다. 여로보암도 실패, 르호보암도 실패,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참고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대하 12:12)

29.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나와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까?

하나님의 보시기에(8, 22)

열왕기상 15 장

1. 대하 11:18-23을 보면 아비얌이 맏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된 것은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누가 어떤 전례를 남겼는가?

다윗이 맏이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지 않고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부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리를 넘긴 것(1장) 그로 인해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기에 르호보암은 사전조치를 완벽하게 취했던 것 같다.

2.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다. 그러면 마아가와 르호보암의 결혼 이전의 본래 촌수는 어떻게 되나?

마아가와 다윗은 2촌(손녀), 르호보암과 다윗도 2촌(손자)이므로 4촌 간이네: 대하 13:2에 따르면 아비얌(=아비야)의 모친(미가야=마아가)은 '우리엘'의 딸이다. 그러므로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오촌이네! 압살롬의 모친의 이름도 마아가이다(그술 왕 달매의 딸).

3. 온전치 못하였으나(3)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250년 동안 왕조가 9번 교체된 반면에 남유다는 40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

핑계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권력지를 찾으시는 하나님: 모든 악을 행하고, 온전치 못하였으나(3) 어떤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행함이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다윗을 위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너를 위해 이렇게 아빠가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때 그게 진짜일까? 핑계거리를 400년 가까이 찾다가 결국은 다른 길로 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다윗의 나라로!

4. 다윗이 우리아의 일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게? 인간은 그럴 수 없다. 큰 잘못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깨끗이 승복하고 용서를 구한 점이 돋보이지만.

5. 아비얌이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을 생각해서: 조상을 잘 만나야하는구나! 그러나 좋아할 것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다. 따라서 왕위를 별로 누리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받은 복은 마디다(=실속이 있다 ↔ 헤브라) 아비얌에게 다윗이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그나마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완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6.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내내 싸우고, 그 아들 아비얌과도 싸웠다. 누가 이겼지?

어차피 이 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갈라놓은 분이 하나님이니 어느 한 쪽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말리실 테니까...(왕상 13:21-24, 사 7:6-7).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뭐하러 계속 싸우나? 감정이나 자존심 대결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통치 수단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이든 이스라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선인데... 이런 불필요한 싸움 때문에 남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이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래도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대하 13장을 보라. 결과로 일시 싸움이 중단되기는 하지만(대하 14:1) 다시 계속된다(왕상 15:16).

7.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즉위 기간 중(22년),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17년), 아비얌(3년), 아사(41년):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이 죽는다.

8.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할머니의 이름과 같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혹자는 아사가 아비얌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였을 것이라고도 한다. 또는 아사의 모친이 일찍 요절한 탓에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닐까? 아비얌이 전쟁으로 바빴고 왕 노릇을 얼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3년) 할머니가 자의 반 타의반으로 그런 역할을 자처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아세라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아사가 반발하고 태후의 위를 폐한 것: 어쩌면 파워게임 아니었을까? 아사가 느닷없이 이렇게 선한 짓을 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아사의 공적을 폄하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일을 격려하고 도와준 선지자는 오렛의 아들 아사랴였다(대하 15장).

9. 아사가 선한 왕이라고 공적을 언급할 때 하필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일이 가장 큰 일인가?

단순한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의 도구(남자 창기)로 사용된 남색이다.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10. 아사가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면서도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3:2, 삼상 9:12 참고)

산당은 원래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산당 자체를 우상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대에는 여기서 다시 우상숭배 행위가 재연되므로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나중에 보니 잘못이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인다.

11. 바아사가 아사와 싸우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왕래를 막으려는 것: 여로보암의 정책과 동일하다. 백성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일수록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다가 무리하게 된다. 우리나라 38선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가? 지금도?

12. 아비얌은 여로보암과 싸워 상당한 전과를 올려서 예브라임의 여사나까지 영역을 확대했었는데 바아사가 라마(예루살렘에서 6km)를 건축하였다는 것은 실지(失地)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다. 아사가 무척 두려웠던 증거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모조리 갖다 바쳤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래도 별 탈이 없을가 (대하 16:7-10) 그 만큼 위협적이었다는 말이다.

13. 바아사가 북방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남쪽의 유대를 공격한 것은 아람과 동맹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람의 공격을 받은 것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국가간의 신의를 이렇게 저버려도 되나?

국가 간에 신의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힘이 없으면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이 국가간의 조약이기도 하다. 아람의 입장에서는 평 먹고 알 먹고다. 유다의 현찰, 이스라엘의 땅! 이런 일을 왜 마다하겠는가! 국가 간에는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4. 디르사에 거하나라?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전쟁을 앞두고 뭐 하는 거냐? 아니다. 바아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표현을 바꾸어 보자.

수도 방위에 주력하였더라: 디르사는 여로보암이 북방전략에 따라 정한 수도이다(14:17).

15. 바아사도 아람 왕이 침공 소식에 적잖게 당황했을 것이다. 증거는?

라마를 건축하던 재목과 돌을 다 버려두고 황급히 떠났다. 얼마나 많은 돌과 재목을 버려두었으면 총동원령을 내려 두 성읍을 건축했겠는가(22) 돌 다 국경의 요새이다.

16. '늘어서 발에 병이 생겼더라'는 말은 왜 하나(23)? 무슨 뜻으로 기록했는지 생각해보고 대하 16:12에서 답을 찾아보자.

선한 왕이었던 아사왕도 명백한 실책을 저지르기도 하였고(18-19) 늘어서 다소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졌다는 말이다. 많이 봐주는 셈이다. 이렇게 가볍게 은근슬쩍 비난하고 지나가는 셈이니!

17. 왕들의 죽을 때의 기록 중에서 아사의 기록이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권세(히, 계부라): 이 말은 아사가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말이다. 선한 왕이라는 평가가 온유한 왕이란 뜻이 아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태후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이들에게는 포악한 왕이었을 수도 있다(대하 16:10).

18. 아사의 장례에 대한 언급(24)을 나답이나(27-31), 바아사의 경우(16:9-14)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열조와 함께'라는 표현이 거듭되고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고 함: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정통성과 연관이 깊다. 반면에 나답이나 바아사는 모반을 당하고 일족이 죽임을 당하고 만다. 정통성이 그만큼 결여된 셈이다. 아사 시절에 이스라엘은 왕이 6명이나 교체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하나님 없이 정치적인 야욕에 사로잡힌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준다.

19.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였다는 것을 보아서 바아사는 어떤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가?

군대 지휘관: 블레셋과 전쟁 중에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지휘관이다.

20. 바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훌륭한 사람이네? 왕을 죽이고 왕족의 씨를 말리는 것이 야히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를 팔고 만고의 배신자가 된 유다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렇게 혹독한 징벌을 받는 것도 불쌍하지만 내가 그 징계를 가하는 수단이 되는 것도 불쌍한 일이다.

21. 바아사가 왕이 되었다고(33)? 그러면 17절부터 29절까지에 등장하는 바아사는 뭔가?

기록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하기 때문이다: 17-21은 아사의 이야기에 바아사가 끼여든 것이고, 27-29는 나답의 죽음에 바아사가 끼여든 것이다. 바아사 본인의 이야기는 33-34절이다. 16장에서 책망하기 위한 도입일 뿐이다.

22.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하고 왕이 되었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텐데 왜 그 길을 따라갔을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니까: 바아사는 24년을 다스렸으니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 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고 한다.

열왕기상 16 장

1. 예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왕을 향하여 이런 독한 말(2-3)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을까? 더구나 아사가 벤하닷에게 예물을 보냈을 때 이것을 심하게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 예후의 아버지라는 점을 감안하면(대하 16:2-10) 어떤 어려움이 더 있었을까?

‘유다’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끔찍한 선고를 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으니(15:16, 32) 더욱 위험한 일이다. 두 왕이나 백성들은 갈라져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구별이 없는 모양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후가 책망한(대하 19:2) 것을 보면 유다에 무사히 돌아오긴 왔는데... 어떻게 무사했을까? 바아사에게 용감하게 선포하고 열렬한 상태에서 유다로 도망쳤을까? 북왕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2.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아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바아사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했어도 비극적인 결말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3.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2)?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바아사가 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7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섭리)하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가 하는 일을 그냥 버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는 바아사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에 정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아사 같은 이가 필요했지만 바아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기심, 정권욕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뿐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각각 별 개의 것이며 동시에 하나이기도 하다.

4.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여로보암의 길’과 가장 가까운 표현을 본문 중에서 찾는다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죄. 나답(15:26 아비의 길), 바아사(15:34, 16:2) 시므리(16:19) 오므리(16:26) 아합(22:52)이 따라간 길이다. (왕하 3:3, 10:29, 13:2, 11, 14:24, 15:18, 24, 28)

여로보암의 죄(31) > 여로보암의 집: 거의 같은 말이지만 전자가 더 분명하다.

5. 바아사에게 ‘너와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음에도 바아사는 24년 통치 후 자연사 한 모양이다. 애꿎은 아들만 코피 터진 셈인가?

아들 대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바아사가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 병고도 없이 자연사한다고 복인 것은 아니다. (다음 문제와 연결됨)

6. 16장에서만 여호와와 말씀이 예후에게 몇 번 임하였는가?

1번이다. 7절과 1절은 동일한 내용이다. 그 사이에 바아사와 엘라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것은 부자지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탓이다. 엘라의 비극은 곧 바아사의 비극이다(13절 참고).

7. 바아사의 집에 일어날 일을 나답이 안다면 무슨 말을 할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 것이다. 바아사가 당할 일(16:4, 11-12)이 자기가 여로보암의 집(나답)에 행한 것(15:29, 14:10-11)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8.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근본적인 것 외에 현실적으로 엘라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시(戰時)에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한 것: 원가 방탕한 듯한 느낌을 준다. 왕으로서의 처신이 부족해 보인다. 시므리가 얽잡아 보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9. 바아사의 집과 여로보암의 집에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동일하게 아들 대에 심판을 받았다(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아들이 2년밖에, 바아사도 24년을 통치하고 아들은 2년) 신복에게 배신을 당했다.

10. 시므리가 모반한 것도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아닌가? 혹시 시므리가 그 내용을 알고 거사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그런데 7일밖에 못하다니?

바아사의 경우에서 교훈을 받았던 모양이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일족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죽였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을 뿐이다.

11. 시므리는 수도 경비 사령부 사단장, 오므리는 원정부대 사단장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더 세지?

시므리가 왕의 신임을 더 받는, 정치성이 강한 장군이었고, 오므리는 야전 사령관으로 전형적인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길보돈에서 철군하여 1주일 만에 디르사를 점령한 것은 오므리가 뛰어난 전략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시므리는 모반을 했다. 그러면 오므리는?

무리의 추대를 받았다. 정통성이 더 있나?

13. 왕 노릇 7일 만에 무슨 죄가 그리 많을까(19)?

왕에게 모반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음: 그 전에 바아사와 엘라의 일에 협력하였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왕에게 모반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왕하 9:31).

14. 아사 26년에 엘라가 왕이 되었다가 아사 27년에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었다. 시므리도 7일 만에 죽었는데,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면 중간에 4년은 어떻게 된 걸까?

오므리와 디브니가 내전을 치르면서 두 왕이 혼재하던 시기였다. 아사 왕 38년에 아합이 왕이 되면 오므리는 7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 23절의 12년은 시므리가 죽던 해부터 계산한 것이고 아사 31년은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이다.

15. 왕으로서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의 공통점은?

왕권 찬탈자: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여 신정국가를 무색케 한 자들이었다.

16. 두 달란트면 68kg 정도다. 수도로 삼기 위해서 차지한 땅값으로 많은가?

금으로 계산하려면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1kg짜리 금과 대여섯 정도? 땅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을 이런 식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레 25:23-38). 후일에 아합이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병이 났던 점을 고려해보면 오므리가 강압적으로 차지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땅을 사고 판 이야기가 거의 없다.

17. 세멜과 사마리아는 비슷한가?

자음은 동일하다(s, m, l).

18. 실제로 오므리는 위대한 왕이었단다. 모압을 정복했고, 앗수르의 기록에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한 점, 수도를 옮긴 점 등이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왜 그럴까?

이런 것을 한 마디로 '배운 권세'라고 요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가만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고려하지 않고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교회에서 더 우대받는다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19. 죽을 때 '권세'라는 말이 명시된 왕들은?

아사(15:23), 바아사(16:5), 오므리(16:27), 여호사밧(22:45), 예후(왕하 10:34)

20. 아합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우상을 섬긴 것: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것이 당장에는 작은 잘못일지 모르나 결국은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 되고 만다).

21.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자에게 여호와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500여년 전의 경고를 물렸을까?

여호와와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다래끼 처리법을 믿지 않으니 세운 돌을 일 부러 끌어차는 행위와 비슷하다. 다래끼는 차도 되지만 여리고 재건은 아들을 돌이나 잃는 비극으로 끝났다.

22. 이 사건이 아합에게는 주는 의미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5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특히 경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경고는 아합을 향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히엘이 아합의 명을 받아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를 아합은 무시했을 것이고.

열왕기상 17 장

1. 위대한 인물이 출현할 때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한 태몽을 꾸거나 기상이변이라도 생기는 법이거늘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소홀하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나란히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이다. 또, '오리라한 엘리야'라는 표현도 있다(마 11:14). 이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반면에 요즈음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듯하다.

2.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신학생 중에 '화랑', '장승'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시대에 '엘리야'란 이름은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엘리'의 뜻은 짐작이 가능하고, 끝의 '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끝에 '야' 혹은 '아가' 붙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불패함, 번역: '엘'은 하나님, '~'이는 1인칭 단수 소유격,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단축형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지극히 신앙적인, 바알 숭배자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고약한 이름이다.

3.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우로가 있지 아니 하리라'는 말은 바알 숭배자들이 듣기에는 가소로운 일이다. 왜 그럴까?

비와 생산력을 주관하시는 신이 바알인데 지가 뭐라고? '내 말이 없으면'이란 표현으로 보아 엘리야가 이 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주창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막판에 선고한 내용인 것 같다.

4.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거창한 메시지가 담겨야지, '여기를 떠나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란 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틀림없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징계보다 엘리야와 관계된 몇몇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있는 탓이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이다.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말씀대로 살려는 몇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다.

5. 물을 얼마나 마셨길래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시는가?

물을 많이 마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숨어서 물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 나와 소알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도(창 19:22)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을 그 때로 삼았기 때문이다.

6. 선지자는 까마귀와 사렘다 과부의 도움으로 산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왜 이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돕는가?

까마귀는 불결한 새이고, 유대인인 눈에 이방인 과부는 불쌍함의 대명사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길래 그럴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이방의 과부를 시켜서라도 일을 이루신다는 경고 아닐까? 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까마귀보다, 이방의 과부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이다. 세상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전 1:27).

7.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나르도록 시키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

둘 다 쉽기는 일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짐승처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방식을 쓰신 것이다.

8. 큰 죄를 범한 죄인이 가장 안전하게 숨어 있을 곳은 교도소란다. 작은 죄를 짓고 신분을 속이고 갇혀 있으면 된단다. 옛날 얘기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애굽의 왕자로 키우셨다. 하나님의 역설이다! 똑 같은 현상을 본문에서 찾아보라.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헬리어 음역으로 '사렘다' 눅 4:24)에 숨긴 일: 시돈은 대적 이세벨의 부친 시돈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다(16:31).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친절에 숨긴 셈이다.

9.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엘리야는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내는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물을 좀 달라, 떡을 먼저 달라)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귀한 때이다. 더구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쥌는 사람에게 물을 달란다. 그 말을 듣고 성으로 들어가서 물을 가져다주려는 사람이 정상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떡을 구워 먼저 줄 리가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어주는냐를 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 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처녀를 확인하느라고 물을 달라는 것(창 24:12-14)과 비교해 보라. 조금 다르다.

10.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도우라(9절)고 어떻게 명하셨을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는 셈치고 낯선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생기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과부는 나중에 알게 된다. 우리 속에 작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다.

11. 물을 가져다주려고 성으로 들어가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신에게 먼저 달라는 것은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가? 선지자는 이렇게 염치없는 짓을 해야 하

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를 확인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이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하고, 좋은 것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 본문을 인용한다면 큰 오해를 하는 셈이다.

12.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13-14)는 낯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 아닌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하루나 이를 더 연장되겠지만 이 사람의 말대로 된다면 굶어죽을 일은 없다. 말하자면 손해 보는 것은 조금이지만 떡을 본다면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라면 확률 상으로도 해볼 만한 일이지 꼭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행동은 귀한 신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다.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귀한 것이지 그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다.

13. 과부에게는 굶어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희망이다. 문제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도중에 무엇이 필요하였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 이런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신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14. 몇 년 동안 신세를 져야 할 형편인데 하필이면 과부 집에 거하게 하는가? 사고 날 가능성이 큰데?

성경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식의 생각은 없는가? 목사도 이런 경우는 무조건 피하라고 하련데... 그런다고 반드시 사고나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다.

15.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 과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18) 일이 터지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24). 아이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다.

16. 이 어려운 때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아들이 죽다니 엘리야의 난감함이 얼마나 심했을까? 어떡하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목사가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믿는 자의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고 무능력한 자의 자기변명일 수도 있다.

17.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메시아인 증거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특이한 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순번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제일 앞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밀렸을까?

선지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경이 보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 탓이다.

18. 이 과부의 신앙 성숙의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낯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반신반의겠지만 속는 셈치고 믿어볼 만도 하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는 바람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도 무슨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강압적인 권유나 체면치레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나중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른다.

열왕기상 18 장

1. 눅 4:25(약 5:17)에 따르면 기근은 3년 6개월이었다. 그러면 제 3년이란 언제부터 3년일까?

사르밧 과부 집에 거한 때부터: 그렇다면 이 곳에 거주한지 3년이 채 안 되는데 '많은 날'이라고 하나? 비가 오지 않는 3년은 많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가 오기 전에 꼭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야 하는가? 죽이려고 버리고 있을 텐데...

결자해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비가 오는 시점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뒤이다. 안 만나면? 고약한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면 만나는 것만 생각하지!

3. 특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한 이유를 16장에서 찾아보자.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16:29-33, 18:18): 바알은 풍요로운 소산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여겼는데 가장 열성적으로 바알을 섬기던 곳에 가장 극심한 기근이 닥쳤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4.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에베드'(섬기다) + '야후'(여호와)이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란 뜻이다. 크리스찬 냄새가 물씬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절에서 주지 시중을 드는 격이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알 숭배의 근원지에서 궁내대신을 하다니? 그럴 수 있나?

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무조건 버리고 나와서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생할 각오를 하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버려야 할 때가 되면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희생적인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타협이 목표인 경우가 더 많아서 비난을 받겠지만.

5. 번역의 문제인데, 본문의 어떤 단어를 '빼들려', '셈(수원지)', '따로'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까?

가져(4), 물근원(5), 홀로(6): 가져'는 원어의 느낌을 살리려면 '빼들려'란 표현이 훨씬 실감나고, 물근원도 의역인 셈인데 많이 쓰는 표현으로 셈이나 수원지가 좋겠고, '홀로'는 내용상 왕이 홀로 간다는 것보다는 따로 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 본문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인 예를 찾는다면?

아합의 입장에서 '오바다를 궁내대신으로 앉힌 것': 바알 숭배의 근원지에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빼들리는 것은 탈로 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다. 아합이 알게 된다면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할 걸.

7. 가뭄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아합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고 노새의 죽음(5): 말은 군사력, 노새는 경제력을 뜻하는 것이다. 아합의 통치 기반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백성이 마실 물이 아니라 짐승이 먹을 풀이다.

8. 오바다는 내무장관이고 엘리야는 시골 목사인 셈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은 장면이 어색하지 않은가?

자연스럽다: 장관과 시골 백성의 만남이 아니라 성실한 성도와 하나님의 사자의 만남이다. 길에 있을 때란 말은 '길을 가고 있다가'라는 말이다. 길에 서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9. 오바다의 말이 너무 길다. 9-14절을 한 마디로 줄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죽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아합을 만나주세요'라는 뜻으로 새기면 오바다가 하나님의 계획(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다(12↔15). 엘리야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느라고 숨겨버리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오바다는 아주 심각한 성도였지만 모처럼 용기를 내서 선지자들을 살린 것 같아 보인다.

10. 10절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엘리야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왜 잡지 않았느냐?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트집을 잡힐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 아닐까?

11. 오바다는 자신이 행한 일을 왜 이렇게 자랑하는가(13절)?

자랑할 형편이 아니라 애원하는 상황이다. 자신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나로 하여금 죽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꼭 들어주도록 간청하는 것이다.

12.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모신단다(15).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모셨나? 사르밧에서 피난 생활을 했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도망간 게 전부인데 언제 하나님을 모셨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다. '모신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앞에 서다'라는 말로 공경하다는 뜻도 되지만 중보의 의미가 있다.

13. 아합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엘리야(17):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이다(17:1). 부모에게 매를 맞은 아이가 왜 맞았는지는 모르고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미리 귀찮해준 동생만 미워하는 꼴이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바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4).

14.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면 도대체 상이 얼마나 클까?

'한 상'이 장소를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영향력 혹은 권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세벨의 후원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살아남은 선지자가 100명인 것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

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것(20)을 감안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을 이들이 다 차지한 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셈이다.

15.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왜 대답을 않나?

대답 잘못했다가는 죽을라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탓이다. 여호수아가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해보자(수 24:16).

16.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법은 정당당한가?

450대 1이라면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엘리야가 불리하다. 정당당당이 아니라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싸우는 것이다: 이 방법이 바알 선지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의견이 무척 재미있다. 희생 제물을 볼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바알을 섬기는 방식은 음란성을 띤 축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란단다.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의 대부분의 제사의식에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과정이 있었다. 더구나 여호와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에 반해 바알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자 태양과 불의 신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백성들이 그 방법을 인정했으니(24절) 불공정한 방법은 아니었다.

17. 바알 선지자는 정말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울 것이라고 확신했을까?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도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오는 확신일까? 일종의 체면이나 자기도취 아닐까? '남을 속으려면 먼저 자신을 속여야 한다'는 말은 자기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독교는 이런 인간중심의 종교가 아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필요하다.

18. 처음에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왜 모이지 않았을까? (정답은 없음)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세벨이 참석시키지 않은 것 아닐까? 바알 선지자는 아합의 직계이고, 아세라(여신이니까) 선지자는 이세벨의 관할이라고 여기고...?

19. 엘리야가 바알을 가리켜 '저는 신인즉 목상하고 있는지...'라고 조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롱이 되나?

말은 신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인간과 똑같다(27). 조금 더 심하면 '화장실 갔는지?' 하지 않았을까?

20.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와 단을 수축하였다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갈멜산에 여호와와 단이 있었다가 무너지고 바알의 단이 세워져 있었다: 이세벨의 꾀박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21. 야곱의 이름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다니? 이스라엘에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로 여호와 신앙과 담을 쌓았다는 말인가?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국사를 가르치려는 노력과 비교하면 필까?

22. 곡식 종자 두 세아는 약 15ℓ로 한말 반 정도이다. 물 12통이라면 한 통의 크기가 한 되도 안 되는데? (정답 없음)

도랑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물이 고일만큼 부으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것이다. 좌우간 분명치는 않다. (1세아는 약 7.6ℓ)

23. 불을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36):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임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한다.

24.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붓는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래도 되나?

전례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한 조치이다. 저절로 불이 불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확률을 높이려는 기도는 하지 않는가? 우연히 될 만한 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가? 가능하면 확률을 낮추어 보는 일도 할 필요가 있다. 기드온의 기적 요구도 그런 셈이다.

25. 하나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칭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출 3:6과 비교): 고유명사는 뜻이 같아도 합부로 바꾸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굳이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26.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인원: 450대 1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기도와 짧은 기도

내용: 이름만 계속 불러대는 것과 인격적인 대화

태도: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몸짓, 자해와 엘리야의 단순한 기도

27. 불을 내려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느 정도로 응답되었는가?

기대 이상의 수준이었다. 돌과 흙,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렸다. 정상적인 불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백성들의 태도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39). 이런 증거를 보여야 겨우 말을 듣는 백성들도 한심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도 딱(?)하시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죄라면 죄다.

28.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자 가장 급한 일이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인가?

이제 마음 놓으시라는 뜻이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왕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긴장과 걱정, 초조함 가운데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제는 걱정거리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다. 왕이 그럴 정도면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좌우간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간접으로 전해준다.

29.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18:1)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다.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도 물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이지, 엘리야의 이 기도를 열심히만 초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약 5:17-18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한방에 끝을 내야 하지!! 아무튼 엘리야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확률을 낮추는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간절하지만 짧은 기도였다.

30.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가 오는데 왜 길이 막힐까? 차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이스라엘의 지형 탓이다. 평지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은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골짜기가 범람하여 통행이 불가능한 탓이다. 더구나 엘리야는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자기가 탄 마차보다 맨 몸으로 더 빠르게 달리는 엘리야를 보고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기도의 대결을 보고 아합이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혼자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마차에 태웠어야 옳다. 아직도 정신으로 떨 차렸다는 말이다.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더 무서웠는지 모른다.

32.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찾는다면? **양다리 걸치기(21)**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마 6:24)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열왕기상 19 장

1.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 죽이는 것이 목표라면 자객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서 체포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굳이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뭔가?

두 가지 의문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본 백성들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공갈만 쳐서 엘리야를 멀리 쫓아버리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잔인무도하고 과감한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처형당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처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면 이세벨의 경고가 심각했다고 보아야겠다. 엘리야도 그렇지! 믿을 수 없는 신들을 왜 무서워하는가? 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권력이 무서운 것이다.

2.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에 어느 정도로 겁을 먹었는가?

순식간에 국경을 두 개나 넘어 도망쳐 버렸다. 이스라엘과 유다(당시에는 우호적이라서 위험?)의 국경을 넘은 셈이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이다.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완벽하게 도망쳤네.

3.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가? 어느 것이 본래 모습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었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겁이 많은 것이 본래 모습이다: 엘리야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엘리야를 강하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다.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다. 강해 보이는 인간도 본 모습은 이렇게 허약하다. 용기를 내다가도 작은 일에 절망하는 것이 사람이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다. 바다 위를 끈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하다. 예수님을 보고 끈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뭇하러 뒤흔치는 파도를 보나?

4. 엘리야가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짓은 일종의 반항이다. 반항적인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보자.

넉넉하다? 다 끝났습니다(공동번역).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모습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10, 14절 끝을 보면 진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는 것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

열조보다 못하다? 뭘 좀 해보자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 잘 하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진다.

먹고 또 누워버린 것(6): 뜨신 밥(숯불에 구운 떡은 원어상 뜨거운 돌 위의 떡이다)에 숟가락까지 먹었더니 또 자?

5.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육체의 피로부터 제거하고 호렘산으로 가게 하심: 먹는 것과 어루만짐(안마?)으로 육체를 먼저 회복시킨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지 못하므로 육체가 건강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육체가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중요성은 있다.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쩌면 자기 의를 이루려는 욕심일 수도 있다.

6.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호렘산은 신앙의 고향과 같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다.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다만, 스스로 찾아갈 힘도 없는 그에게 천사가 힘을 주고 위로 하였듯이 성도는 좌절하는 성도에게 이런 천사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호렘산은 어디인가? 신앙을 처음 가졌던 장소나 신앙을 갖도록 인도했던 선배나,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나 추억도 좋다. 처음 사랑과 감격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다. 이혼 직전의 부부가 마지막으로 연애시절의 추억이 담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것이다.

7. 꼭 먹어야 힘을 얻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말로만으로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두신 법칙을 어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자연스럽게 역사하신다! 자연법칙을 함부로 무시하고 기적을 남발하시진 않는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창 8:22)처럼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존중하심이다.

8. 엘리야의 능력이 흔히 말하는 초능력자의 것에 비하여 다른 점은?

항상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점

9. 엘리야의 낙심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낙심하게 되는가?

열심이 특심한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낙심도 하지 않는다. 뭔가를 해 보려면 온갖 어려움이 다 닥치는 법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공한 이후에 (독선에 빠져) 나만 남았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7000이나 남아 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크게 성공한 자는 낙심도 크게 하는 법이다.

10. 브엘세바에서 시내반도로 간다면 아무리 멀어도 열흘 넘을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갓길래 40주야나 필요할까?

정상적인 여행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님과 모세의 40일 기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도망을 쳤다면 이제는 기도와 금식을 동반한 여유로운 여행이었던 모양이다.

11.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가라고 했으니 왔지요?’(이것도 일종의 반항이다) 엘리야의 답은 ‘목숨이 위태로워 피하였나이다’는 것이 핵심이다(10, 14d).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 물을 때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동일하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피했지요’ 하는 것은 반항이다!
12.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도 반항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점이 그런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그런데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대답을 반복하는 것: (위의 질문 참조)
13.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나 지진을 동반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 하실 때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려는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숙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광경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출 19 장).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도 가족들에게는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요, 남편이다. 때로는 공처가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시 119:105) 자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도 깊이가 다른 모양이다.
14.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면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함을 느꼈고(사 6:5), 베드로는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꼈다(눅 5:8).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셨다(출 33:22-23).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다(행 9:8).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먼저 가릴까?
15. 하나님은 엘리야가 대답을 했는데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까?
 엘리야의 대답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항적이 답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이세벨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해버린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가?
‘새로운 사명을 받음으로’라고 답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 버린다(로렘나무 아래의 만남과 호렘산에서의 만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하박국이 그러하고, 바울이 그랬다. 선지자들이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렇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
17.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는 무엇인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 하도록 하는 것: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장관이었다. 후에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왕하 8, 13장). 예후는 남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밈의 아들이다(왕하 9:2). 히브리 원어에서 아들이나 손자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16절).
18.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는 동업자인가?
 함께 의논하거나 뜻을 정한 일은 없다. 각자의 욕심이나 사명감에 따라 활동했을 뿐이다. 다만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19.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인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해왔다. 온갖 박해와 한때 교회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
20. 결국, 죽여 달라던 엘리야의 기도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신 셈인가?
‘마무리는 해놓고 와야지!’ 하신 셈이다.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다.
21. 엘리사가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경운기나 트랙터가 12대나 있는 셈 아닌가?
22. 겉옷을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엘리사가 바로 그 의미를 알았던 모양인데?
‘나를 따르라’기보다는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것 같다: 고대에는 복장이 대단히 중요했다. 직무에 따라 복장이 달랐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보고 누구인지 바로 알았던 모양이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여 기적을 행한 것(왕하 2:13-14)을 보면 겉옷이 인수인계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23. 엘리사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마 4:18-22, 눅 5:1-11을 비교해 보라.
 제자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름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미 소문이 널리 퍼졌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부름을 받고 따랐다.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존경하며 동경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서 고통하며 번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인 순종의 원인을 엘리사에게서만 찾는 것은 옳지 않다.
24.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요청한 것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무척 통명스러워 보인다(20). 문맥상으로는 그렇

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오역일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보자.

영역본들은 대체로 동일하다. 'Go back again, what have I done for you?' 그러니 개역성경이 원문에는 충실해 보인다. 의역을 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고 번역했다. 원문을 보고 느낌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5. 소를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기구까지 불에 사를 필요가 있나?

과거의 삶과 철저히 단절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친지와 집을 떠나는 잔치를 벌이는데 소를 두 마리나 잡았으니 엄청나게 큰 행사였던 모양이다.

열왕기상 20 장

1. 아람 왕이 거느린 왕이 어떻게 32인이나 되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방호족이고 서양식으로 말하면 영주인 셈이다. 아람이 작은 소국들의 집합체였고 그 중에서 벤하닷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벤하닷의 처음 요구(3)를 아합이 오해한 모양이다(4). 벤하닷의 처음 요구는 무엇이며 아합이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

벤하닷은 '문자 그대로' 수탈하겠다는 말인데 아합은 항복하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그러나 정작 빼앗아가겠다는 말에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굴욕적이더라도 항복할 마음이 있었다.

3. 벤하닷의 처음 요구에 대한 아합의 태도와 두 번째 요구사항을 들은 장로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장로들이 훨씬 어른답다. 이들의 확고한 태도를 확인한 후에 벤하닷과 싸우려고 했다. 그래도 벤하닷에게 전하는 말은 아주 유순해 보인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 벤하닷에게는 이렇게 굴욕적인가?

4. 벤하닷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이란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인가?

자신의 병사가 많다는 뜻이다. 사마리아를 철저히 부수어도 가루로 만들어도 자기 병사들의 주먹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자기 병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5. 아합의 대답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 어떤 자가 갑옷을 입고 어떤 자가 갑옷을 벗는가?

입는 자는 '싸움을 준비하는 자'고 벗는 자는 '싸움이 끝난 자'이다. 이기기도 전에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6. 악한 아합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승리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하심(13, 28):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자신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끝끝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합의 가장 큰 죄일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경훼방죄이다.

7. 14-15절의 소년들이란 병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로 병사들이다. 그러면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을 백성들과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병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정예 병사들이다.

8.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아람의 군대를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자.

이스라엘은 7232(양과 방백을 빼고) 아람은 십만 이상(2차 침공 때의 숫자이지만 25절을 참고하면 대체로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긴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증거이다. 무기가 발달한 현대에는 혹 그럴 수 있지만 주로 사람의 힘으로 싸우던 고대에 군사 숫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

9.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도무지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정찰대의 보고에서도 그런 점을 찾는다면?

전쟁터에서 술에 취한 점(16): 설마 먼저 공격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움직여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오더라(17): 특공대가 나가는데... 200여명 정도는 군사로 취급조차 안 한다는 말인가? 군사들의 공격행위로 볼 수 없더라는 말이다.

사로잡으라(18): 싸움 상대로 보지 않고 아주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이다.

10. 아람 왕의 신하들이 보는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산의 신에게 산에서 댈빈 것: 일반적인 신의 개념은 다 이런 식이다. 일정한 지역의 신이거나 특정한 기능을 가졌다고 여겼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란 개념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이런 사상이 자연발생적이거나 어떤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평지에서도 지면 뭐라고 하지? 산과 평지의 신?

충성심이 없는 32왕: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방의 호족들이나 군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장관들이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

11. 이스라엘 군사들도 두 부대였던 모양이다. 다만, 염소 새끼의 적은 때라면 어떤 모습일까?

양떼는 제법 큰 무리를 이루는데 염소는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도 설쳐대는 짐승이라서 양떼처럼 밀도가 높지도 않고 듬성듬성한 작은 떼였을 것이다. 도저히 아람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는 말이다.

12. 아백은 이스라엘의 성읍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전진기지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성읍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알 수 없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람이 1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만을 죽이매'에서 '죽이다'는 단어는 '치다'로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아백에 피하여 들어간 27000은 10만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13. 우리가 알기에 이스라엘의 열왕은 선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람의 신복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켜 '인자한 왕'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것이 맞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권한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멋대로 통치하던 전제군주가 아니었다. 율법을 지켜야 했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서 견제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전제군주에 비하여 인자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14. 아합이 왜 벤하닷에게 이렇게 선심을 썼을까? 선지자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이리 저리 일 보다가(40) 엉뚱한 곳에 마음이 쏠렸다는 말이다. 포로를 지키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리다니...

15. 적국의 왕을 사로잡고 죽이는 것보다는 일정한 약속을 받고(34) 놓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28, 13, 42). 이 전쟁의 승리에 아합이 공헌한 것은 없다. 그러면 누릴 것도 없어야 하는데 승리에 대한 즐거움은 다 누리다가... (경상도 말로 하면) 썰데없이 썰락거리기는!

16. 동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신을 치라고 한다.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인간적으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쳐야 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작은 것이라도 큰 징벌이 따른다. 더구나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단호한 시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했다. 인간적인 정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17. 아합의 대답 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라는 말(40)이 이상하다. 스스로 결정한 것은 없는데? 그에 대한 선지자의 대답(42)이 아합의 말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자.

선지자의 말(42)을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면 아합의 말도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한다. 원어의 의미는 '내가 잘랐으니, 내가 결정했으니'라고 볼 수 있다. 표준새번역은 '내가 받아 들였으니'라고 번역하였는데 가능한 번역으로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 더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런 짓을 했으니'가 될 것이다.

18. 비유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비슷한 사례는 다윗에게도 있었다. 삼하 12장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 선지자들은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의 태도: 다윗은 즉각 통회 자복했다(삼하 12:13). 반면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한다. 이 표현보다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라는 번역(표준새번역)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인간의 본성이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19. 단순하게 변장하기 위험이라면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변장을 하나? 그냥 상처입어서 봉대를 감은 것처럼 해도 될 텐데...

실감나게 하느라고? 모르겠다!

열왕기상 21 장

1. 아합에게 이런 잘못이 생긴 것은 물론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반면에 아합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다음 표현들과 관련지어 보자.

< 그 후에(1),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1),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18, 1),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16) >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람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 이스라엘에 별궁을 짓고 여유를 가진 것이 화근의 뿌리였다.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본 것도 비슷하다. 남자들이 돈과 시간이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던가? 여유가 있어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약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2. 아합이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가꾸려는 마음이 든 것은 결코 아니다. 비싼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바꾸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물 밭'으로 번역된 말의 의미를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도대체 아합에게 어떤 욕심이 생겼으며, 2)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1) 나물밭이란 말은 '꾸른 정원'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농사용이 아닌 화원으로 보아야 한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에 좋은 정원이나 산책코스처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2) 밭을 치르고 사거나 바꾸기로 함: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왕이 이렇게 저 자세로 나가면 고맙게 여겨야지...

3. 나봇이 왜 거절했나?

왕이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 조상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레 25:23-28).

4. 나봇이 거절했을 때 아합이 취하는 태도를 보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철없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반응도(27)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쪼대 없음 아닐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도 두렵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빠져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철없는 아이?

5.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자신이 드러누운 이유를 바르게 설명하였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는 이유, 즉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표현을 생략했다(6). 마누라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6. 이세벨이 보기에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병신: 왕이라는 게 포도원 하나 못 빼앗고 빼쳐서 앓아대기는! 그래 가지고 왕이라고?

7.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가지고 왕이라고?: 대부분의 군주가 그러했듯이 고대 군동의 전제군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런 이방 군주의 딸인 이세벨의 생각에 왕은 그런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왕이어서 전혀 개념이 다르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을 수 없었다.

8. 예전에는 흥부가 칭찬을 받았는데 요새는 놀부가 새롭게 각광을 받는 모양이다. 이런 세태라면 이세벨이 유능한 여자라고 추켜세울지도 모른다. 요즈음 세대가 하는 말로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

결단력 있고, 과감한 추진력에 모사꾼이다.

9. 위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이세벨과 비교하면 아합은 어떤가?

이건 완전히 흥부다. 쪼대도 없고, 생각도 모자라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마누라가 행해주면 좋다고 따라가고: 처신 자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10. 이세벨과 아합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왕권에 대한 시각 차: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제군주적인 것이 아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권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라 해도 이런 기본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이방 나라의 전제군주적인 왕권에 익숙한 이세벨은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다. 왕이 이런 것도 못하나? 달리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이다. 우리가 겉을 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어떤 불신자들은 눈도 한번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기도 한다.

11. 이세벨도 이스라엘의 법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공동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참회할 때는 금식을 한다(참고, 삼상 7:6, 14:24).

사형에 처할 만한 증인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신 17:6, 민 35:30).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사형에 처한다(참고, 출 20:7, 22:28)

붓을 죽이려는 재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빙자하여 자행되었다. 이세벨이 그만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12.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받은 편지는 아합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인장도 아합의 것이고(8). 그런데 왜 이세벨의 분부대로 했다(11)고 하는가?

이름은 아합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세벨의 분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왕보다 더 무서운 왕비라는 것

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발달된 눈치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알아서 기는 것이다. 재판을 진행한 다음 이세벨에게 통보했다(14).

13. 다음 사람들에게 나쁜 정도에 따라 순번을 매겨보자.

< 이세벨, 아합, 장로들과 귀인들, 비류 두 사람 >

① 이세벨: 주모자

② 장로들과 귀인들: 불의한 명령에 순종함

③ 비류 두 사람: 전자와 동일하지만 다소 적은 일

④ 아합: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내고 싶으나 전혀 그럴 위인이 못 된다는 점에서).

14. 이세벨은 한번 마음 먹으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사키시고 만다. 이렇게 유능하고 박력이 넘치는 이세벨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없는 과감은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한 때의 잘 나감일 뿐)

15.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말은 '죽인 것도 악한데 하물며 강도짓까지 하느냐?'는 말이다. 아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니,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사실은 우리 마누라가 한 짓이야)'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16.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제 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해주신 감격도 다 사라지고... 이 말의 분위기를 살려 번역하면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공동번역)로 번역이 가능하다. 못된 짓을 하다가 들린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17.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비명횡사할 것이고 장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더구나 왕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선고이다.

18. 여로보암의 집, 바아사의 집, 아합의 집은 다 같은 모양이란단. 연립주택인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후손이 끊어진다는 점에서 같은 모양이다.

19.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래도 이해할 건덕지라도 있지만 아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더욱 빛이 난다. 그 점을 지적한 표현은?

스스로 팔려(20): 스스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곳에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말이다.

20. 아합이 악하다면 어떤 점이 악한가? 그의 인생이 잘못된 원인은?

언뜻 보면 악하다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뿐이다.

부인을 잘못 만나서(25):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과정에서의 책임은 일단 접어두고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불행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점이다. 마누라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열왕기상 22 장

-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왜 그 신복에게 말하는가?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유다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란 뜻이다. 남북이 모처럼 화해 분위기에 젖어 하나가 된 이유는 점증하는 앗수르와 아람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아마 아합이 자기의 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키고 추진했을 것이다. 이 아달라가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
- 길르앗 라못은 위도상으로는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이고 경도상으로는 훨씬 동쪽이다. 도피성 중 하나였다 (신 4:43, 수 21:38). 원래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아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합이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
20:34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아람 왕이 약속을 어긴 모양이다. 더구나 유대와 관계도 좋아졌으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두 번이나 아람의 침공을 막아 주었으나 풀이키지 않는 아합을 이제는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러 하신다.
- 여호사밧의 이 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는 문제가 없을까?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아합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아합을 여호사밧이 도운 셈이 된다.
-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19:10)?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11)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아 형식상으로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한 모양이다: 이들은 왕권에 대한 견제역할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존재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다. '여호와와 선지자'를 찾았다(7).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금방 이상하다는 핏새를 알아차린다.
- 여호사밧은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의 한 명이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과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평하는 것을 듣고 '그런 말씀을 마소서' 즉,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왜 그를 선한 왕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도 흠이 있다면?
물어보려면 전투를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아합과 동맹해도 좋은지를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참고로 8절의 '오히려'는 7절의 '이 외에'와 같은 말이다.
- 길한 일을 말하지 않고 흉한 일만 말하는 선지자, 문제 있는 것 아냐?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걸... 왕이 좋은 소리 들을 짓을 해야 길한 말을 듣지! 아무만 하는 선지자만 곁에 두니...
- 아합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여호사밧은?
은근히 그런 아합을 책망하는 듯: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8c) =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길하든 흉하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호사밧이 달리 선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 대부분의 왕정국가는 궁궐의 요직에 내시를 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 22:24, 신 23:1,2에 따라 내시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1) 여기에 웬 내시가 있을까? 2) 어느 성경에 내시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
1) 이세벨이 풀여온 모양이다: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한 셈이다. 로마 황제 중에도 부인에게 휘둘러 온갖 풍파를 다 일으키고 백성에게 바보라고 비난받은 황제가 있더라(클라우디우스). 아합은 그릇된 주장이 강한 마누라에게 잡혀서 나라를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2) 에스더: 힌트는 이방왕궁에 대한 묘사가 많은 성경이다. 행 8에 5번, 에스더에 12번, 왕하에 4번, 왕상에 1번, 대하에 1번 나온다. 휴! 왕상 22:9, 왕하 8:6(개역성경에는 '관리'지만 원어상으로는 내시임) 9:32, 24:12, 15, 25:19, 대하 18:8, 에 1:10, 12, 15, 2:3, 14, 15, 21, 4:4, 5, 6:2, 14, 7:9, 행 8:27, 34, 36, 38, 39
- 왕들이 무계를 잡고 앉은 그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400명이 하는 예언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부성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제대로 볼 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보다 못하다. 성경에서 뿜은 힘을 가리킨다. 철로 만든 뿜이니 이것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아부성 발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사밧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말이다.
-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가?
자신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다(22). 문제는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영이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탐욕이나 권력을 향한 욕망이 거짓 영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용하게 만든 것이다. 스스로 속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이다.
-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와 미가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고방식의 중심이 왕이나 하나님이냐는 것: 왕이 듣기에 길한 말만 하라는 것은(13)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이요, 왕중심이다. 선지자의 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14)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하는 말과 유사한 행태를 오늘날 우리 삶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이 하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말을 먼저 정해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고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앞서고 하나님께서 뒤따라오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느냐?'의 차이이다.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설거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13. 미가야가 처음에 한 말은 아합을 조롱하는 말이다. 아합이 그것을 어떻게 금방 알았을까?

평소에 하는 말과 워낙 다르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른 말이 나오니 믿을 수 없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묻는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하지만 본문의 아합처럼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자에게까지 신학적으로 모범적인 답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사람은 평소에 잘 해야 한다. 1) 평소에 못된 말만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그럴까? 2) 또, 나쁜 말을 하면? 아합의 입장에서 대답해 보자.

1) 그럴 리가 없다. 바른 말 해라(16)

2) 그것 봐라 저런 못된 소리만 한다니(18)

15.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가? 악한 영의 탓인가? 아니면 자신의 탓인가?

자신의 탓이다: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20:42, 22:22). 알고 계셨다는 뜻이다. 악한 영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악한 영은 아합의 그런 성향을 이용할 뿐이다. 결국 아합 자신에게 있었던 군사적 탐욕이 악한 영의 유혹을 부르고(약 1:13-15) 하나님께서 허용,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신다. 이전의 승리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도 잊은 채! 뒤이은 미가야의 환상에서도 아합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도 듣지 않은 것은 아합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16. 미가야가 본 것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것이다(17).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이 되는가?

백성을 괴롭히던 왕만 죽으리라는 말이다(36절 참고): 양을 괴롭히던 목자가 없어지고 양이 흩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은 목자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말이다. 아합의 출정이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이었지만 왕이 죽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평안이었다.

17.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이 선지자가 예상대로 고약한(?) 예언을 하자 혹시라도 여호사밧이 마음을 돌이킬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18절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18. 미가야의 환상에 대하여 시드기야나 아합의 반응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던 여호사밧은 왜 아무 말이 없을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대로 아무래도 아합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합의 편에 서는, 말하자면 타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19. 미가야의 말을 들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의 분노(24)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마디로 건방지다.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시드기야와 같은 대부분의 우상숭배자들은 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자기가 여호와와 영을 주관이나 하는 듯하다. 적지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수인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셈이다.

20. 고생의 떡을 어떤 번역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떡'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의역이다. 아합의 의도는 미가야가 굶어죽으면 안 된다. 왜?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당당하게 오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면 이쯤에서 그는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을 되새겨 보아야 했다(21:19). 두 선지자가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를 언급해도 도무지 새겨 들으려하지 않는다.

21. 미가야에게 큰 소리를 잔뜩 쳐대고는 변장하고 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점쟁이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흉한 말이 자주 생각나는 정도일까? 경험상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완악한 인생이다. 그렇게 변장하면 아람 군사들의 눈도 속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태도 없는 소리지만! 그러고 보니 이런 신자가 많은 세상이네!

22. 아합이 변장하고 숨었다는데 여호사밧은 여전히 왕복을 입고 싸운다? 미련한가? 바보인가?

모르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굶어죽어도 체통을 잃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미련 공맹이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23. 이 전쟁은 아합이 시작한 것 같은데 아람 왕의 목표는 오직 아합 뿐이다. 잔뜩 버르고 있었다는 말인데 왜 그럴까?

아마 지난번 전쟁의 치욕 때문일 것이다(20:34). 왕복을 입은 자를 치려다가 아합이 아니니까 그냥 두었을 정도다. 어리석어 보이는 여호사밧이지만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셈이다.

24. 아람과 1, 2차 전은 엄청난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겼는데(20장)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와 연합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도 왜 졌을까?

하나님 때문이다: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고, 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1, 2차 전의 성공, 많은 선지자들의 격려, 여호사밧과 동맹, 정치적 상업적 안정 등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졌던 모양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이다.

25.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하던데 '우연히'라는 말이 있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섭리이다. 다음 구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조금 고쳐보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 한 사람이 우연히(=아무나 맞아라 하고) 활을 당겼는데 (하필)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지라. 아합의 죽음은 20:42절의 성취이기도 하다.

26.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도 우연인가 필연인가?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왕상 21:19).

27. 피 많은 아합과 어리숙한 여호사밧이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어리숙한 여호사밧은 무사히 돌아오고, 피부리던 아합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를 부리지 말자?

하나님을 알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28. 볼 수 있는 온갖 유형의 인간들이 다 등장한다. 간단하게 인물평을 해보자.

여호사밧: 사람은 좋으나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실속없이 고생만 함(한 민족이라고), 그나마 하나님의 편에 있기에 제일 무난함, 가짜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음. 아합 왕과 사돈지간(아합의 딸 아달랴 + 자신의 아들 여호람: 결과는 별로)

아합왕: 간사하고 꾀만 부리지만 결국은 당하고 만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불행의 원인: 우리도 좋은 소리에는 기분 나쁘다! 이것만 극복하면 위대해지는 건데...

그나아나: 아합이 있으니 이런 인간도 있는 거지

미가야: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 대언함

아람 왕: 지난 번 수치를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29. 우리가 아는 아합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다. 아람과 싸워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둔 것이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증거는?

상아궁과 다른 성(39): 화려한 상아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나라가 부강했다는 말이다(22년간 통치함).

30.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여기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하 17-20에 있다. 여호사밧의 치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43): 열왕기 기자는 눈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은 산당이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였던 탓도 있을 것이다. 후대에 문제가 커져서 폐하게 되지만...

31.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함으로 평화를 정착시킨 공은 적지 않지만 나라를 쪼개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했고, 방법 면에서도 진지해야 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루어낸 평화지만 후일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왕하 11:18, 대하 19:2). 에돔에 섭정왕이 있었다는 말은 에돔이 여호사밧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예시온 계벨에서 솔로몬 시대에 왕성했던 다시스 선단을 다시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남은 사적과 베륜 권세, 전쟁에 관한 기록을 생략(45)하는 저자가 실패로 끝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대하 20: 35-37 참고)

아하시야의 재안을 거절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왕이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32. 고속도로가 하나만 제대로 뚫려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하물며 세 개나 뚫린다면? 북 왕국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고속도로가 세 개나 뚫린 셈이다. 이름은?

아비(아합)의 길, 어미(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52): 겨우 2년밖에 왕 노릇 하지 않은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혹독한 비판이 쏟아지다니!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인가? 아하시야를 책망하는 말은 결국 아합의 죄를 책망하는 말이다.